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으로 자녀들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삶의 원리로 삼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신앙이 대대로 전수됨으로 하나님나라가 확립되게 하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4)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52호 2013년 9월 2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부모신앙 따를만한 가치 있을 때 따른다!

### CT, USC 뱅슨 교수의 가족신앙전수 40년 연구결과 밝혀

신명기 4장 9절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며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가르친다.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한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필요한 신앙 전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받아 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글짓기" 식의 전수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관, 삶의 의미와 원리를 전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의미를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면서 교회와 신앙도 함께 떠나게 되는 "소리 없는 출애굽(Silent Exodus)"의 결과를 낳게 된다.

오늘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대부분 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아직도 부모의 역할(특히 어머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인격교육과 학교교육이 그러하듯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도 가정의 삶 속에서 이뤄진다.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신앙전수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셨다(신 6:4-8). 한마디로, 고기 잡는 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은 같이 고기를 잡는 것이다. 즉 신앙은 삶을 통해서 전수된다!

CT는 이처럼 신앙이 부모의 신앙과 삶 즉 가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수된다는 사실을 USC 뱅슨(Vern Bengston) 교수의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다(Religion Runs in the Family : Ven Bengston's research shows the surprising resiliency of faith as it passes from parents to children). 뱅슨 교수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3,500명 이상의 조부모, 부모, 손자 그리고 손자가 낳은 자손 등 4대에 걸쳐 어떻게 해서 가족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지를 연구해 그 결과를 곧 책(Families and Faith: How Religion is Passed Down across Generations)으로 출간하게 된다.

뱅슨 교수 본인이 바로 "돌아온 탕자"다. 그는 16세기부터 복음주의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신앙의 가문"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복음주의 안락교회의 목회자였기에 뱅슨은 10대였을 때 아버지가 서재에서 성경과 함께 항상 신앙잡지(크리스처니티 투데이)를 읽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거의 전 생애를 가정안에서의 신앙전수 즉 어떤 가정은 신앙이 성공적으로 전수되고,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한 이유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거의 500년 이상이나 신앙이 계속 전수, 유지되고 있는 신앙의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뱅슨은 항상 자신을 "탕자"로 여겼고, 이로 인해 그의 어머니는 나중에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염려할 정도였다

흔히 "모태 신앙인"처럼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한 시점에서, 그는 영적각성 즉 회개를 경험하게 된다.

주일아침 일찍 일어나 찬양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듣고 싶어 서둘러 교회로 가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신4:9)

게 댔고, 산타바바라 시 다운타운에 있는 제법 큰 고딕양식의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찬양이 빛어내는 울림에 그만 쓰러져 버렸다. (3면으로 계속)



2면

"너무 지나치면 알라 신도 싫다!"



13면

방지일 칼럼 "본대로 들은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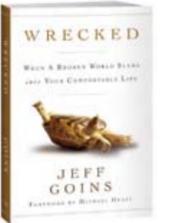
16면

세계종교문화뉴스

## 당신의 삶에서 "난파" 를 경험했는가?

### 크리스천북닷컴, 제프 고인스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무너짐 소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독수리가 거센 바람을 피하지 않고 양 날개로 받으며 더 높은 상공에 올라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모험과 철저한 무너짐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다. 진정한 무너짐이란 철저한 깨어짐과 자기 포기를 통한 새 출발을 의미한다.



제프 고인스(Jeff Goins)는 블로거이자 강연가이며 저자다. 비영리단체 '어드벤처 인 미션'(Adventures in Missions)에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하면서 여가에 글을 쓰다가 최근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의 블로그(GoinsWriter.com)는 온라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트 중 하나로, 작가들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훌륭한 자료가 많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매달 그의 블로그를 찾는 방문객은 8만 명이 넘는다. 제프의 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고 있다.

고인스는 "난파"(Wrecked)를 통해 무너짐에서 시작해서 무너짐의 의미를 전하며,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연속적인 경험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놓이기 쉬운 진정한 제자도의 시작과 참된 인생의 가치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 난파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위한 분기점 복음은 불안한사람을 편안하게, 편안한사람을 불안하게 해

난파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위한 분기점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 지역, 직장, 가치관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일을 두려워한다. 각박한 직장생활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번 도태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안전한 길, 검증된 길만 추구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틀에 박히고 구태의연한 현재에 만족하려고 한다. 자신만의 안전지대에 편안히 앉아 별일 없이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겨우 월급날이나 여름휴가에서 느끼는 짧은 기쁨으로 남은 날들을 살 뿐, 일상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줄 어떤 일, 우리가 하는 일에 목적을 줄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 우리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 익숙하다.

고통 없는 일상, 고민 없는 삶만 추구한다면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인생이 난파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비전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고통을 지나보지 않고서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없다. 만약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곳을 피하고 떠나서는 진정한 인생을 배울 수 없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불안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원하는 만큼의 깨끗한 물, 하루 세끼 식사, 정전 없는 전기 공급.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조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루지 못할 소망일 수도 있다. 남의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누리는 것들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라. 죄책감 너머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 가치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결과가 좋으리라 믿지 못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무모하고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무너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은 분명 가치 있을 것이다.

### <초 교 파>

#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제1기 세미나

#### 포럼의 취지

- 4차원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모임
- 시대적, 현실적 요구를 4차원영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모임
- 4차원 영성을 성도들의 실천신앙으로 확립코져 하는모임
- 영적함의 원리인 4차원 영성을 통한 창조적 리더십 발휘
- 4차원 영성을 통한 개인적, 공동체적 변화의 기적체험

#### 포럼의 활동

- 영산 조용기목사의 4차원 영성 강의
-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강연 및 세미나
- 교육교재 및 서적, 연구집 발간
- 지역별 / 전문별 Net-Work 형성
- 1사 1교회 자매 결연
-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과 연계하여 국제 활동
- 4차원 영성 상호회 가입

일 시: 2013년 10월 5일(토) 오전 8시~12시(4시간)

장 소: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1층 세미나실

자격(참석):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 장로권사, 집사

참가비: 30불(식사+교재포함)

선착순 신청자한하여 참석가능함, 40명

#### [문 의]

회 장 석종규 목사 714-318-9528  
수석부회장 최명상 목사 323-317-3749

## 주최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시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얼마 전 정신질환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강사는 비수한 환경에 사는 자들이라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형편이나 처지가 남달리 더 어렵거나 고통스런 것이 아닌데도 유독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에서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좋은 기술로써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억압으로 받아들이는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삶을 지

혜롭게 살 수 있는 기술(The Art of Living)이 필요하다. 같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징계/discipline)으로 가르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히12:7)를 NIV는 "고난을 훈련처럼 견디라(Endure hardship as discipline)"고 번역하였다. 옛날 양반집 자제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친민의 자녀들은 그런 훈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다. 군대의 장교들은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오랜 기간 받고 견디면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길러 나간다. 이렇게 보면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은 유익한 것이다. 인간이 20년 넘는 교육을 받는 이유도 결국 그 교육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가혹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훈련 때 흘린 땀방울과 전쟁터에서 흘리는 핏방울은 반비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훈련을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축복이 된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다. 그는 신학생 시절에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가난할 때 자가용을 타고 다녔을 만큼 여유있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서 기름으로 음식을 튀기다가 불이 붙어 그 불을 끄는 과정에서 불과 기름 위에 미끄러져 튀기는 바람에 전신의 43%에 3도 화상을 입는 고통을 당하였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수 없이 반복된 화상치료와 온 몸이 오그라드는 후유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수 년 후에 휴양지 시골에 들어가 살다가 부탄가스가 터져 또 한 번의 화상을 당하였고 그 뒤에는 또 뇌졸중과 디스크에 시달려서 친구들은 그를 향하여 읍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곤 하였다. 나는 그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멀리서 들을 때마다 그가 겪을 아픔에 오금이 저려 하면서 "Why?"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

함께 온 성격이 팔팔한 사모에게 물어보았다. 남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도왔느냐고.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정반대였다. 자신은 읍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했노라고. "당신 정말 하나님의 종 맞나?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고통을 주시는데도 목회를 계속 할 거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마치 읍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사모가 야유하고 조롱하면 눈 딱 감고 가만히 있다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는 뒤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읍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런 훈련 속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그것 역시 읍이 말년에 감정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받은 축복 역시 놀라운 것들이어서 그의 간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의 삶이 척박하다보니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병에 걸려 고통하고, 경제난에 부닥쳐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져 정서적으로 안정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고난에 "Why?"라고 물으면 답이 없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How?'를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길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읍이 그랬던 것처럼 입으로 불평하여 죄를 짓지 말고 순전한을 지켜야 한다. 또한 강한 영적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웬만한 어려움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바위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도 담금질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원하여 훈련 받으면 굳이 하나하나씩 훈련 시키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면 알라 신도 싫다!”

AP통신, 중동민주화 요구 확산 후 인터넷 통해 퍼지는 무신론자 증가 보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서 성장한 라팻 아와드는 대학시절 열성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하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슬람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성직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오히려 이 의심은 발전해 결국 무신론자가 됐다. 23세의 약사인 아와드는 무신론자가 된 이후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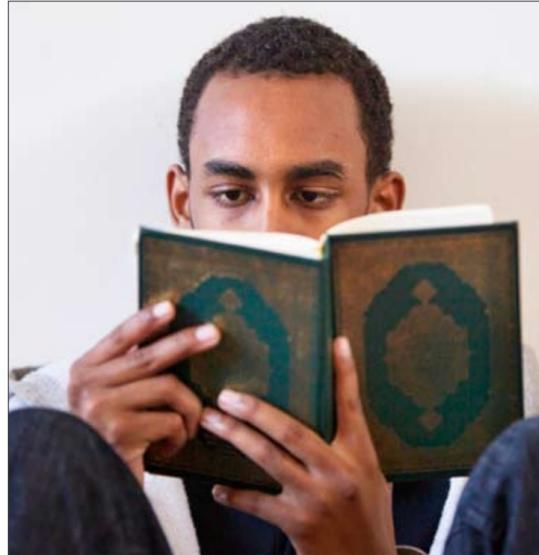
아와드처럼 공개적으로 무신론을 고백하는 일은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아주 보수적인 아랍 세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아랍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세속주의적인 사상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일이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고평을 불러오며, 만약 무신론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면 이슬람 강경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P통신은 놀랍게도 중동 지역에서 거의 이단자나 배교자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금기시됐던 무신론이, 3년 전 중동에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점점 더 파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rab Muslims-turned-atheists: Out of the shadows and onto the Internet).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랍의 소수의 무신론자들은 활동을 벌여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고, 2011년 아랍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부터 그 활동을 넓혀갔다.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아랍의 반정부 혁명은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무신론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슬림이었다가 무신론자가 된 40세의 한 이집트 기술자는 자신이 오래 동안 외로움을 느껴왔고 또 무신론 신념을 숨겨왔지만 이집트에서 2011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랍의 무신론자들은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고 있



세상으로 나오고 또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아랍의 세속주의자들도 무신론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반정부 시위 이후 이슬람주의자들이 더 엄격한 이슬람 사상을 사회에 도입하는 이슬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정부 시위가 처음 발생한 튀니지에서 18세의 한 무신론 여대생은 자신이 무신론자인 것이 학교에서 알려지자 배교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고 털어 놓았다.

무슬림 중에는 무신론자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다른 무슬림들은, 무신론자들이 무슬림을 무신론자로 개종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무신론자들도 포용해야 한다는 무슬림들도 있다.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무신론적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과 무신론 사상을 전파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공개하는 것은 아랍 사회에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단절은 물론 사회생활이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무신론 신념을 공개한 이후 우울증과 고립을 경험했다고 인터넷에서 털

페이스북에 아랍어사용 무신론자 계정 55개가 반정부시위 후 조성 3년래 자유주의적 사회 분위기 따라 이단자 취급서 탈출기미 보여

다. 하지만 인터넷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아랍 국가에서 무신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종교(이슬람)를 모독하는 혐의로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2년 이집트의 한 무신론자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에서 반이슬람 영화를 소개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종교(이슬람)를 모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3년 징역형을 받았다. 2012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프랑스로 갔다. 팔레스타인에서도 한 무신론자가 2010년 인터넷에서 이슬람을 조롱했다는 혐의로 체포를 당해 수개월 동안 구금을 당한 후 풀려났다. 그도 프랑스로 피신을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공간은 무신론자들이 선호하는 활동 공간이다. 페이스북에는 약 60개의 아랍어를 쓰는

무신론자들 계정이 있는데, 이들 중 55개가 반정부 시위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예멘의 무신론자들(Atheists of Yemen)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에는 적게는 25명의 팔로워들이 있으며, '수단 무신론자들(Sudanese Atheists)' 페이스북 계정에는 10,344명의 팔로워들이 있다.

무신론 계정 중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정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계정은 활동이 미미하다. '아랍 무신론 방송'(Arab Atheist Broadcasting) 계정은 친무신론 유튜브(YouTube) 동영상 올리고 있다. 무신론자들 사이의 이성교제를 중재하는 계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폐쇄(closed) 계정이다.

무신론 계정에는 종종 악성 댓글이 올라온다. 아랍의 무신론자들이 이슬람을 모독해 유럽으로

가려는 비열한 행동을 한다는 댓글도 있다. 서구인들 가운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최고의 결정이라고 칭송한 반면 이슬람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된 이들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하한 글도 있다.

아랍의 무신론자의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어 놓았다.

하지만 많은 무신론자들이 아랍 사회에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으며,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같은 서구의 저명한 무신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자들도 많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p><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안내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유능하고 창의력을 갖춘 실력 있는 리더로 가는 첩경"

Midwest Leadership Program 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지성과 인성, 영성과 리더십을 통한 소통의 공간이며 비전을 세워갈 동지를 만나 네트워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며 리더로서의 학문적 배경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본교소개

1.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여개국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 www.midwest.edu)
2.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프로그램.
3. 본교는 전 세계 리더십분야 교수들과 CEO로 구성된 국제리더십협회(ILA) 회원대학교로서 전세계 리더들의 네트워크에 동참할 수 있음.

-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CL 48 Credit Hours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 자격**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 관계없음)  
2. 각 전문분야 종사자 (영관급 이상의 장교, CEO, 경영인, 학교장,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이상, 부장급 경력 5년 이상인자, 목사, 선교사, 장로, 단체인장, 여성전문인, 체육지도자, 전문분야 경력 15년 이상)  
3.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전문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학력제한 없음

\* 201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점 취득과정과 학위취득 절차

1. 직장파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Online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학위취득 가능.
2. 미국에 유학하여 (SEVIS I-20 Form 발행) 학위 취득 가능.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 campus courses - SEVIS I-20

Apply Now!  
E-mail to Midwest

문의 및 상담: 리더십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손동원교수 covenant@unitel.co.kr

Midwest 동문

- 김병도 박사 (장신대학교 설립자, 전, 총장)
- 구두희 박사 (전, 숙대 총장)
- 김윤수 박사 (보이스 대표)
- 김영준 박사 (Midwest 총동맹회장)
- 김남일 박사 (광운대 교수, 한국총동맹협회장)
- 김영민 박사 (대전 총동맹 회장, 연영 총동맹 회장)
- 김성민 박사 (기아연 총동맹 회장)
- 김소영 박사 (한예총총동맹 회장, 대전대 교수)
- 노병진 박사 (전, 대일, 전, 나사렛대 부총장)
- 박승준 박사 (한울고 교장, 전, 로타리총장)
- 박준근 박사 (한국원큐비전센터 대표)
- 박은진 박사 (대한항공 리더십연구소 소장)
- 사정숙 박사 (안동대 미대교수, 미술평론가)
- 서정숙 박사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 염영준 박사 (GGU 명예총장, 전, 기공협대표)
- 오세영 박사 (성신여대 교수, 전, 경명대학총장)
- 유호준 박사 (미국정신과 의사, KWMC 의장)
- 유정원 박사 (전, 중앙총대 학장, 교회음악협회 이사장)
- 윤정기 박사 (예음 총장, 전, 예장(개) 총회장)
- 이상희 박사 (KWMC 발행위원장)
- 이상희 박사 (안양 생명원 이사장)
- 이영희 박사 (대영영문고교, 전, 신원경성고교 단장)
- 이태원 박사 (전, 영문고등학교 교장)
- 임영미 박사 (재태대학교 유대 교수)
- 정관기 박사 (예장(백) 총동맹 회장)
- 정근호 박사 (전, 과거재정, 전, 호서대, 명지대총장)
- 정준용 박사 (전, 고신연총사 사장, 전, 기독교보 사장)
- 정영민 박사 (New Global Leadership 회장)
- 최희영 박사 (전, 순복음신학교학장)
- 최병두 박사 (전, 예장(개) 총회장)
- 최성준 박사 (전, 대한사회복지사업회 회장)
- 최일식 박사 (Kinetnet 사무총장, KWMC 사무총장)
- 한도수 박사 (전, 바울신학교, 보좌관 신학교사)
- 황영희 박사 (안양 생명원 회장)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usa@midwest.edu (636) 277-4645, 070-8690-2662

#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치는 것과 같다!

## CT, USC 뱅슨 교수의 가족신앙전수 40년 연구결과 밝혀

(1면에서 계속)

C. S 루이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는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환희에 그만 놀라게 된 것"이다. 따라서 뱅슨은 자신의 신앙유산과 아울러 교회와 같은 신앙공동체의 도움으로 탐자와 같은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한다. 결국 뱅슨은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이 어떻게 해서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전수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가정 안에서의 신앙전수를 연구한 뱅슨은 한마디로 현재에도 신앙의 영향력은 감소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즉 1970년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나 2005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신앙적 유산성은 동일하다는 결론이다.

그는 바로 신앙의 4가지 차원

이 되고 있다고 뱅슨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의 가문들이 거의 40년 동안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인 중 18-40 세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은 아무



녀들이 이를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밝힌다. 따라서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회로만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자신들이 부모들을 통해 보고 배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다.

현재 40% 정도의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을 따르고 있을 정도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전적으로 맡아 기르게 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2백5십만 명의 조부모들이 한 명 이상의 손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이나 결손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조부모들에 의해 키워진 손자녀세대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자신들을 키워준 조부모들의 신앙유산을 본받아서 살게 된다.

결론으로, 뱅슨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관계를 계속 갖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만 집을 나간 탕자가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 올 수 있는

## 소망 칼럼

###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기독교인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벧전2:11)이라는 별명이야말로 아름답고 가장 적절한 별명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취해야 하는 자세는 가장 먼저 욕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해야 한다. 성경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욕세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2:11)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욕이란 욕체의 온갖 욕망을 의미한다. 사람의 욕망이나 욕구 자체는 악한 것일 수 없다. 돈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경제가 건설되고 기업이 발전하게 된다. 남녀 간에 애정의 욕망이 결혼을 성립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돈 벌고 싶은 욕망이나 남녀 간의 애정의 욕망이 단순한 욕체의 정욕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돈을 버는 목적이 욕망이면 끝이 없다. 백억 벌면 천억 벌고 싶고 천억 벌면 1조를 벌고 싶다. 가게도 하나가 잘되면 둘을 만들고 싶고 둘이 잘되면 열 개, 백 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지 않던 뿔에 걸려 넘어지고 말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잠시 잠깐 세상에 와서 머물다 가는 인생이라도 때가 되면 다시 천국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니 그 때를 생각하며 이 세상사는 동안 욕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욕체의 정욕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벧전2:11-17). 그리고 욕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이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202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주의 보혈이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도 주의 보혈이며, 욕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도 주의 보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렴에는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라고 반복하였다.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은 금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 보혈의 능력인 것이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변화될 때 욕체의 정욕을 이기고 제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자동차에는 가속페달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다. 달릴 때는 가속페달을 밟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한다. 멈추어야 할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큰일 난다. 욕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정욕이 일어날 때 제어 페달을 밟아야 한다.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제어 페달을 안 밟으면 큰일 난다. 분하고 화가 치밀고 울화통이 터질려고 할 때에는 감정을 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제어 페달을 즉시 밟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로서 착한 행동을 하며 선량하게 살아야 한다(벧전2:12).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고 말씀하셨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다(벧전2:17).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바른 신앙생활 태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신명기 6:5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사랑을 소홀히 하여도 안 되고, 돈을 버는 사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해서도 안 된다. 또 고통이나 시련 역경 혹은 세상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도 안 된다. 언제나 변함없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마21:42, 시118:22).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 "받아쓰기" 아닌 "글짓기" 식...가치관과 삶의 원리 전수 평균수명 증가로 조부모 양육 늘어 신앙 전수율도 한 몫

들, 신앙 강도, 정기적인 종교적 출석 횟수,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따른 동의 그리고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종교의 중요성을 비교해 봤을 때,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을 전수시키려는 부모들의 열망은 동일하다고 평가한다.

물론 미국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합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집단적인 가족의 가치를 지키려는 젊은 부모들이 바로 자신들을 키워준 부모들을 본받아 등장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미국 문화는 가족이 어떠한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가족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족 간에 전수되고 있는 신앙유산이 바로 미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

런 신앙이 없다고 여기는 "비종교인들"이 30%가 되고, 이들의 자손 역시 부모들의 종교적 성향 즉 비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답습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 가정과는 달리 유신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독실한 가톨릭이나 경건한 복음주의 가정과 같이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들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대를 둘러싼 가족이란 울타리에서 어떻게 해서 신앙 전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뱅슨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일관적인 모델링"이라고 말한다. 만약 부모들이 일관되지 않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

두 번째로, 신앙의 전수 성공 여부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질이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상하고 따뜻하게 자녀들을 대하면 신앙의 전수는 더욱 성공적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독재자와 같은 권위로 신앙을 따를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다가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자식들은 정말 따를만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야만 따른다는 점이다.

한편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조부모들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신앙 전수율을 높이는데 단단한 몫을 하고 있다고 뱅슨은 말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앙과 사랑은 별개의 사실이라는 점을 부모들이 알아야 한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자녀들이 거부하게 되면 부모로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바로 부모 자신들이 누렸던 신앙이 주는 여러 유익들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순응과 사랑이 결여된 신앙의 순응을 부모들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신앙을 거부한다면, 부모들은 항상 "내가 모범이 되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항상 사랑으로 다가서고 있는가?"를 물어야만 자녀들은 다르게 된다고 뱅슨 교수는 신앙전수의 비결을 강조하고 있다.

## "너무 지나치면 알라 신도 싫다!"

(2면에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신학자 무스타파 아부 스웨이(Mustafa Abu Sway)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신론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신론자들의 활동은 제도화된 이슬람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

고, 무신론자들의 존재가 아랍 사회에 조직적이며 심각한 정도의 위협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랍의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더 활발하고 대담하게 무신론 활동을 벌여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동사회에서 세속주의와

파주의자들이 우세했을 때 불가지론 사상이 중동 사회에서 큰 저항을 받지 않았다. 당시에도 소수의 무신론자들이 무신론 사상을 외치곤 했다. 이제 중동은 다시 한번 종교에 회의론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관용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듯하다.

1980년대 중동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회로 변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했

으며,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이슬람을 버린 배교자들을 처단했다. 그러나 역사가 반복되듯이 다시 한번 아랍 사회는 자유주의적인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무신론자들은 숨어 지내며 인터넷에서 가명을 사용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었으며 이제 자신과 같은 무신론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있다.

# 목회자 리더십 컨퍼런스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이 제공하는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민교회를 이끄는 참신한 리더십을 지닌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우고 나누어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리더십과 위기관리



김한요 목사 (열반인 베델한국교회) 리더십과 멘토링



노진준 목사 (한길교회) 리더십과 영적권위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리더십의 핵심가치

일시 10월 15일(화) 10:00 a.m. - 4:00 p.m.

장소 Garden Suite Hotel California Room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Free Self Parking)

- 등록비: \$30 (점심식사 포함)
- 등록문의: Tel. (626)857-2200, email: aher@apu.edu
- 10월 8일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등록해주세요.



AZUSA PACIFIC UNIVERSITY

#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 교회여!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하라!

미국 테네시 주 내쉬빌에 사는 크리스천 작가 레이놀(Shane Raynor)은 십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Teens don't show up because they don't think God is showing up"라고 말했다. 교회

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자 파티를 하고, 좋은 체육 시설과 오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다.

32살 여성 작가 에반스(Rachel Held Evans)도 자신의 CNN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교회 지도자들은 20세 전후의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를 교회에 끌어들이려면 최신 음악, 캐주얼한 예배,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블루진을 입은 목사, 세련된 웹사이트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영터리 통념에 불과

하다. 젊은이들은 교회가 쿨(cool)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We're not leaving the church because we don't find the cool factor there; we're leaving the church because we don't find Jesus there).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단체이다(행 1:8).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할 수 있는 곳은 온 세상에서 오직 교회밖에 없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종교도 줄 수 없는 것,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교회가 외면하고, 오

히려 세상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데 어리석은 일이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최신 음향시설도 좋지만,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친구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책,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어떤 쾌락, 어떤 유혹, 어떤 우상숭배, 어떤 죄악의 물결도 이기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신학자나 철학자

들의 말이 아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사회 윤리도 아니다. 지식을 주고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 영혼 구원에는 오직 기도와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행 26:18) 본질적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고후5:17).

어설르게 세상을 흥내 내지 말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하자. 승리할 것이다.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의 세대를 구하게 될 것이다.

# 푸 / 른 / 초 / 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성도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주 범죄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시험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전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평생에 시험을 치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바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심지어는 40일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예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은 어렵고 힘든 고난과 핍박과 역경으로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또한 평안하고 형통함 가운데도 언제든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로랜드 힐 목사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 마리의 돼지들을 이끌고는 도살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돼지들이 자신들이 죽을 것도 모르고 너무도 순순히 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저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흘려주었습니다."

이때 로랜드 힐 목사가 무릎을 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쾌락의 콩, 욕심의 콩, 미움과 시기의 콩, 상처의 콩,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콩알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뿌리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의 콩에 현혹되어 그 콩

을 주워먹으며 따라 가다보면, 우리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에 오 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7절).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우리 주

는 로마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고의로 불을 질렀던 것이죠? 그때부터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됐고 이 박해는 313년 밀라노 칙령까지 무려 250년가량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거기서 카르타고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32년 어느 날, 200명의 선원들

변의 모든 일들 즉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전부가 다 사단이 주는 시험의 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콤한 콩이 아닌, 마치 독약이 든 콩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먹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결국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상황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이 서신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 대화 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화재

## 시험을 이겨라

(벤전 5:7-9)

이 샌디에고에 있는 비행선의 계류 기둥에 거대한 비행기구를 잡아매려고 그 기구에 달린 줄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그 기구가 하늘로 치솟는 바람에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구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이내 땅에 떨어졌고, 대부분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가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 45분이 지나고 그 기구를 다시 잡아끌어 뭍 때까지 그 선원은 여전히 그 기구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미터가 조금 넘는 로프를 발견하고는 자신을 그 로프로 묶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비행선이 자신의 몸무게 정도는 쉽게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고는 그냥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기도의 줄로 하나님께 묶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37편의 말씀과 같이 저가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찾아가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실 맡겨버리라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빌4:8).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8절).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고, '깨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늘 자신을 컨트롤하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처

요? 왕이 물었습니다. "모퉁이 구두 가게를 보았는가?" "못보았습니다" "그럼 쌀가게는?" "못보았습니다" "그럼 가구점은?" "죄송합니다. 기쁨을 쏟지 않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못보았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저 맑은 일에만 집중하여 충성하지만 잘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고 무슨 일든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신하며 깨어 준비된 삶이란 바로 이처럼 늘 마땅히 해야 할 맑은 일에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맑은 일은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사회이든, 어디서 있든지 오직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나라 건설에 대한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본질 외의 다른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닌데, 자식이 아닌데, 큰 집이

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굳센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약 4:7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독교의 신학적인 중심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 과제는 바로 믿음으로 이 마귀권세를 다 함께 싸워 물리치고, 죽을 영혼, 넘어질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꼭 상기하십시오. 싸움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마귀를 때려 부수려고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발견하고, 늘 용서로써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만 맡겨버리며, 오직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사람이 아닌 사단을 대적하는 거룩한 성정을 치루는 거룩한 용사로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또한 시험을 이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고, 육신의 편안함이나 안락이 아닌데, 자꾸 그런 쪽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뿐 아니라 자식도, 남편이나 아내도,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마6:33).

셋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9절).

이제는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성도의 목표와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집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나라만 보고 달린다하여도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까?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험이 다

# 후임목사님 청빙

뉴욕실로암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Reformed church in America 교단에 목사로 자격을 갖추신 분
- 제출서류 1) 정규 신학교 M.Div, 졸업증명서  
2) 목사 안수 증  
3) 이력서(사진, 가족, 학력, 경력사항)  
4) 자기 소개서  
5) 목회 계획서  
6) 최근 영상 한국어 설교2개 와 영어설교 1개
- 제출 마감 2013년 12월31일
- 제출처 The Siloam Reformed Church of NY  
35-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 문의: 김인규 장로, (347)419-2929, inkyul@gmail.com

본교회에서는 EM중고등부를 담당하실 파트타임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 뉴욕실로암 장로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현대는 도박이 정당화되는 시대이다. 이제는 도박이 만연되다 못해서 정부에 의하여 도박이 주도되어지는 시대이다. 미국내의 40여개 주에서 도박이 허용되는데 이제는 온라인 도박이 양성화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년사이 뉴저지, 델라웨어 주가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했고, 지난 2월에는 네바다 주가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 여러 주들도 올해 안으로 온라인 도박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주 정부들의 양성화 움직임 덕분에 온라인 도박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네바다 주는 1931년 도박장 개설에 첫 타이프를 끊은 이후에 이제는 온라인 도박장 개설도 허용했다. 미국의 IT업계는 온라인도박

진 것은 개인당 26,901달러. 그중에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64%였다. 도박으로 카드한도를 초과한 사람은 57%이나 되었다. 특별히 한인화라인에 도움을 요청한 도박자가 무려 47%가 되는 것을 보면 도박회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5세 이하의 도박자가 65%나 된다. 한인 도박사들은 전세계 카지노에서 반기는 1등 고객이다. 도박을 길게 하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중국인과 달리 한국인들은 화끈하게 올인을 하고, 끝장 투기를 한다. 한인들은 단연 최고의 고객들이다. 이제 온라인 도박까지 허락되면 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일 것이다.

도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괴의 시작은 가정이다. 도박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파탄은 부모나 배

에 약한 자들을 포함하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제비는 희생제물을 선택하거나(레 16:8), 지파의 분깃을 나누거나(수 18:1-10), 제사장(왕상24:31), 음악가(왕상25), 문지기(왕상26:12-16), 그리고 여러 제물에 대한 책임(느10:34) 등을 결정할 때에 사용했다. 지금의 도박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

물론 성경에는 도박하지 말라와 같은 직접적인 금지명령은 없다. 하지만 Kevin Moore는 성경에는 도박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는 없지만 도박의 일반적인 동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들은 많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 도박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이다.

도박의 기초는 불신앙이다. 도박은 우상숭배의 한 패턴이다. 동기는 분명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한다. 도박은 그 자체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도박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대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사랑과는 정면으로 반대된다(눅6:31). 도리어 이웃의 좋은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의 변역

서는 지불할 수 없고 심리적으로 낙담되고 짓눌림을 당한다. 그들은 수치스럽고 외로움을 느낀다.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시도한다. 그나마 교회를 찾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도박이 왜 죄인가? 도박은 탐심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이다. 성경은 탐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약의 죄다. 도박상습자들이 그 구령임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 주 정부들이 도박을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적 조직적 탐심의 죄이다.

도박은 윤리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져야 한다(골3:23-24, 살후3:7,10).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 도박은 사회의 건강한 경제의 구조와 원리를 더욱 더 약하게 만든다. 도박의 기초가 되는 일확천금과 한탕주의는 사실 자본주의의 가치관도 무너뜨린다. 도박은 좋은 경제적인 가치관들을 타락시키며 탐심과 이기주의로 대치한다. 도박가는 열심히 일하는 것 대신에 행운과 우연에 의존한다.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가끔 혈기와 분노가 노출되면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형상을 닮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A:**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나다니엘 호손이란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거대한 바위들이 어우러져 만든 얼굴이 있는데 언젠가 그 골짜기에서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어네스트는 어린 소년시절부터 매일 어머니와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큰 바위얼굴을 닮은 사람이 자기 동네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가면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게더골드 씨, 울드 브러더 센 선더 씨 등 위대한 정치가 시인 등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큰 바위얼굴의 아름다운 인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네스트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연가가 됐는데 그가 하루는 숲속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한 시인이 어네스트의 모습을 보고는 "큰 바위얼굴이 어네스트를 닮았다"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석양

###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뜨려야

에 비친 어네스트의 강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닮았다. 결국은 어네스트에게서 큰 바위얼굴의 인품과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네스트에게 큰 바위 얼굴의 형상이 나타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에 반드시 환경을 통해 고난도 겪게 하고 연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히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고 고난가운데서도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롬8:29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바울사도는 말했습니다. 말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는 즉 Little Christ, "작은 예수"가 돼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주님을 닮는 것은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예수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사람들과 환경과 사건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렘23:29).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정과 같아서 우리의 불순종고집, 교만, 불신 등으로 싸여있는 우리를 깨뜨리고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성령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둘째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레로 천을 짤 때 씨줄과 날줄로 짜듯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나를 위하고 격려하는 사람과 나를 적대하고 흠담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분의 지혜와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우리 주변에 머물게 하십니다.

셋째,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에 반드시 환경을 통해 고난도 겪게 하고 연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히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고 고난가운데서도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도박 문화의 파괴성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사업진출을 위해서 각축전 벌이고 있다. 새로 열리는 미국의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는 최소 1천억에서 1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 엄청난데 더 증가될 전문학적인 숫자이다.

도박의 위험성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도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도박은 만연되어있다.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하는 카지노 화투노름이 만연되어있다. 개인적인 게임수준의 노름도 그렇지만 더 위험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주도되는 도박시스템이다. 미국 전역의 카지노들의 슬롯머신, 복권, 경마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도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 미국내 대다수의 주에서 카지노 사업을 허락하고 경마와 복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도박을 장려하고 있다. 도박의 수입은 주정부들이 애용하는 세금 외에 또 다른 수익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주정부의 수입을 위해서 도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도박문제협회 CCPG가 2005년까지 지난 5년간 5만2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보고서는 파괴 충격적이다. 한인들에 대한 통계도 나왔다. 남성이 53% 여성이 47%인데 연간 도박금액이 29,165달러였다. 도박으로 빚

우지는 물론 미혼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도박은 반드시 부채와 파산을 가지고 온다.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면 카지노나 도박장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나만은 예외"라는 자기당착에 빠지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도박자는 평균적으로 자신의 1년치 연봉과 또 1년 연봉만큼을 더 빌려서 2년치 부금을 한해에 도박에 탕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금융질서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박의 밑바닥에는 즉시만족과 한탕주의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재정적 심리적 파탄을 가지고 올 때까지 불나방처럼 불로 달려들기를 쉬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해가 없지 보인다고 해도 노름은 결코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도박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도박이 많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성경에는 중요한 일들을 놓고 제비를 뽑는 일이 나온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도박의 일종으로 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제비뽑기는 부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도리어 중요한 결정

과 행복을 망치는 것이 된다. 바울도 탐욕을 경계했다(엡5:3).

경제학자인 Earl Grinols는 도박에 대한 사회적인 경비를 지적한다. Suzii Paynter는 도박에 대한 개인의 총동보보다도 주정부의 관여가 파괴성을 증폭시킴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주정부가 수백, 수천만 달러짜리 사업의 동업자가 되어 함께 세련된 도박시스템을 디자인한 것이다. 도박은 참여하는 사람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아니면 돈이 다 말라 버릴 때까지 빨아버리는 인생을 망치는 흡혈귀와 같다.

미국내에 적어도 2백만명 이상이 도박중독자다. 매해 1%씩 병적이고 강박관념이 사로잡힌 도박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도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그 외에도 4-6백만명 이상은 상습은 아니지만 도박의 유혹으로 행동과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

도박자의 비율은 안타깝게도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Deborah Haskins에 의하면 도박중독자들은 자신의 습관을 가족과 친지와 성도들에게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상관하지 않는다. 도박은 파괴의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직장을 잃고 집은 파산하고 렌트와 청구

도박은 가정을 파괴한다. 도박이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적인 경비가 엄청나다. 로또에 사용된 돈들, 경마장에서 날려버린 돈들은, 관계의 약화와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가져온다. 도박이 합법화 될수록 가정은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모든 가족식구들은 마침내 극빈자로 전락케 된다.

도박은 각 주가 법적으로 후원하는 시스템화 된 악한 죄다. 롬13장은 정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했다. 정부는 사회의 질서와 유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런데 도박을 장려하는 각 주의 정책은 인간의 탐욕을 악용하는 악한 행동이다.

도박은 아주 나쁜 사회정책이다. 도박은 아주 나쁜 경제정책이다. 도박은 아주 나쁜 통치정책이다. 도박은 사회의 도덕적인 기초를 흔들 뿐 아니라 정부의 부패를 초월한다. 도박을 합법화하는 시대는 사회를 더 타락하고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매우 나쁜 선택일 뿐이다. 도박의 파괴성에 강도를 더하는 주정부들의 어둠의 탐욕의 협력은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과 결단이 요구된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On Campus Courses

####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 -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나이지리아의 고에마이(GOEMAI)



고에마이 Goemai는 나이지리아의 Plateau주의 Shendam, Gerkawa, 그리고 Namu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북쪽에 있는 Ngas와 남쪽에 있는 Jukun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Goemaliland는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에마이가 농촌사회를 이루는 기반이 됐다.

고에마이의 기원은 Ngas 족장의 아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에 고에마이는 저지대(lowlands)의 가장 큰 민족이었다. 남부중앙의 Damshin, Shemankar, 그리고 Kwande가 남부 고에마이와 혼합된 Jukun 이주자들로부터 Jukun의 문화적 영향을 계속 받았던 것에 반해, Goemaliland와 그 중앙의 Shendam은 Ngas의 문화의 많은 면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Jukun과 Ngas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고에마이에 연관돼 있지만 이 세 그룹의 언어는 각각의 그룹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고에마이인들은 보통 농사를 짓는데, 주로 생강, 수수, 기니 옥수수, 콩, 과일을 기른다. 또 쌀, 땅콩, 호박, 토마토도 기른다. 밭을 일구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약간의 가축도 기른다. 가족단위 마을을 그룹지어 둘러싼 둥근 진흙벽으로 된 오두막에서 산다. 각각의 오두막은 두개의 둥근 원통형 벽들로 돼있다. 안쪽 벽들은 곡물창고로 쓰여지고, 바깥벽과 그 벽 사이의 공간은 그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각 고에마이 촌락에는 최고통치자이며 종교적 지도자인 족장에게 답을 해주는 주 성직자가 있다. 그들의 통치체계는 상당히 잘 조직돼 있다; 주 성직자들은 자문회의의 형식을 취하고 왕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활동한다. 군대지휘자(고에마이와 다른 그룹 사이에서 중간 역

할을 하는), 요리사, 이발사(대관식을 거행하는) 등의 공무원이 있다. 주 성직자들은 실제적인 종교적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고에마이는 위와 아래 양니를 줄로 다듬는 관습을 공유한다. 하지만 많은 관습과 믿음이 왕에게 관계돼있다. 한 예로, 왕은 Benue 강을 쳐다보면 죽게 된다. 전통적으로 왕이 죽으면 그의 아내와 딸과 하인은 그와 함께 같은 무덤에 매장된다. 또한 아무도 왕의 농장이 경작되기 전까지 그들의 농장을 경작하지 못한다. 왕권의 가장 두드러진 물질적 심볼은 신성한 머리장식인데 이것은 왕의 백성이 경작한 농작물이 심볼화 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원반나 아이보리 핀이다. 관습과 믿음은 마찬가지로 평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남자아이들은 7세에 할례를 받는다.

의식으로 이 행사를 기념하고 특별한 춤이 그들 주변에 벌어진다. 댄서들은 그 남자아이들의 발 앞에서 땅위에 계속해서 구른다. 결혼도 중요하다. 아내를 얻기 원하는 남자가 그녀에게 안에 옷이 달려져있는 돗자리를 가져다준다. 그녀는 그것과 함께 다른 구혼자에게서 받은 것들을 그녀가 선택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신부의 값이 치러지면, 신부는 큰 천에 덮여 씌워져서 신방으로 인도된다. 그곳까지 뱀처럼 땅을 천천히 기어서 여자들이 신부를 뒤따라온다. 신부는 혼례를 마치기까지 밖으로 나가거나 평상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음식도 가져다준다.

들은 최상의 신과 집안주변의 신(그들이 독특하게 합성해낸 신)을 믿는다. 다른 것들 사이에서 조상의 영혼과 비를 둘러싸고 자리잡은 점과 제식이 반복된다. 조약돌이 형상을 만들며 땅에 던져지고 그것이 어떤 일을 결정한다. 고에마이인은 죽거나 바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 매나 머리에 벼를 가지고 있는 학을 죽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새들의 깃털을 힘의 상징으로 여기며, 올빼미를 나쁜 징조의 새로 여긴다. 필요로 하는 것들 고에마이인들은 기독교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들 중 아주 소수만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져왔다. 고에마이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신앙 고에마이는 99%가 민족종교자이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매일의 삶의 단면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파키스탄 교회테러로 정부-반군 협상 '빠져'

파키스탄에서 소수 기독교 신자들을 상대로 한 대형 테러가 발생, 정부가 파키스탄 탈레반(TTP) 등 무장세력과 추진해온 평화협상에 '빨간 불'이 켜졌다. 22일 오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툽와주 주도 페샤와르의 한 교회 앞에서 일어난 자살폭탄 테러로 78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부상했다. 파키스탄의 1억9천만 인구 가운데 1.6%로 추산되는 기독교 신자를 상대로 한 테러 피해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테러소식이 전해지자 페샤와르, 수도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등지에서 잇따라 시위가 일어났으며 테러를 막지 못한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왔다. 탈레반의 한 분과인 '잔돌라'라는 무장단체는 사건 발생 수시간 후 자신들이 미국의 무인기 공격에 보복하고자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며 파키스탄 북서부 산악지역에 대한 미국 무인기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비무슬림을 상대로 하는 테러를 계속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도 무인기 공격이 한차례 이뤄졌다.

이번 테러는 정부가 지난 9월 주요 정당회의를 열어 정부와 무장세력간 평화협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데 이어 이틀 뒤에는 탈레반 측과 포로교환까지 해 평화협상을 위한 신뢰가 구축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평화협상 추진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한 파키스탄 무슬림리그(PML-N)당이 유세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PML-N 총재인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테러 발생 후 TV로 생중계된 방송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는 이슬람 교리에도 어긋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샤리프 총리는 이어 "이런 사태는 평화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때우 불행하게도 이번 사태 때문에 정부는 당초 추진키로 했던 것(평화협상)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장세력 측에서 극적인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협상이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잔돌라 측이 탈

레반 지도부의 의중과는 별개로 이번 테러를 저지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가 탈레반 지도부의 향후 반응 등을 바가며 협상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7년 12월 다양한 무장단체가 세를 합쳐 출범한 파키스탄탈레반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로 북서부 등지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테러를 벌이고 있다. 북서부에는 대표적 무장단체인 탈레반을 비롯, 100여개의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군부는 정부와 무장세력간 협상에 반대하고 무장세력에 대한 물리적 진압을 선호한다. 과거에도 정부와 무장세력간 평화협상이 벌어져 합의가 도출됐지만 무장세력이 합의를 번번이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역시 협상을 통해 무장세력이 온존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지리아군, 보코하람조직원 150명 사살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급진 이슬람 단체 보코하람 조직원 150명을 사살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다. 나이지리아 육군 대변인 이브라힘 아타하루는 지난 12일 동북부 보르노주의 반군 기지를 기습해 150명의 보코하람 조직원을 사살했다고 18일 말한 것으로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아타하루 대변인은 문제의 반군 기지가 중화기로 무장된 상태였으며 이번 교전에서 정부군도 16명의 군인이 숨지고 9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일간지 벤가드 인터넷판은 소셜 미디어를 인용해 문제의 교전에서 정부군 40명이 숨지고 65명이 실종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번 교전이 정부군 병력이 반군 기지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반군 전사들에 노출돼 오히려 반격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에 대해 아타하루 대변인은 그런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슬람교 모독' 터키음악가, 항소심도 실패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키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파즐 사이(43)씨가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은 20일 이스탄불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 4월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이씨가 터키 사회의 한 집단이 가진 종교적 믿음을 모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그가 범죄기록이 없어서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무신론자임을 밝힌 그는 지난해 4월 트위터에 무에진(이슬람사원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면서 시민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당시 무에진이 22초 동안만 기도를 알렸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 애인이 기다리고 있나, 아니면 술자리가 있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고대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카이얌의 시구를 인용해 "천국에는 포도주가 흐르고 아가씨가 기다리고 있다"던데 천국은 술집인가, 사창가인가란 글도 올렸다. 사이씨는 이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시구를 리트윗 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그는 이날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트위터에 "삶이 계속되고, 자유인으로서 사고를 계속하는 한 나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썼다.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태국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조만간 하원 정의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동성 간의 시민적 결연에 대해 세제, 연금 제도 등과 관련해 이성 간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동성에 옹호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성 결

혼 허용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남녀 성별 간 정보격차 심화돼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술과 기기에 대한 접근에 있어 남녀 성별 차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2일 '디지털 기회 배가: 여성과 소녀들의 정보사회 편입 촉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접근이 남성보다 여성이 2명 정도 적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격차가 3억5천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ITU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발족한 브로드밴드 위원회가 전 세계의 성별 인터넷 접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28억 인터넷 사용자 중 15억명이 남자인데 반해 여자는 13억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이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별로 없으나 인터넷 요금이 비싼 개도국에서는 남자들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여성 수가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21%만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휴대전화 보유에 있어 남녀 격차는 3억명이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아직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들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대형 신흥시장과 맞먹을 정도의 신규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마돈 투레 ITU 사무총장은 "모바일 혁명이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정보통신 분야의 힘을 보여줬지만, 이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빚어진 남녀 정보격차 심화현상을 지적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조속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접근이 10% 증가할 때 GDP도 1.38% 성장한다면서 6억명의 여성을 온라인에 접근하도록 할 경우 약 180억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로 전 세계 GDP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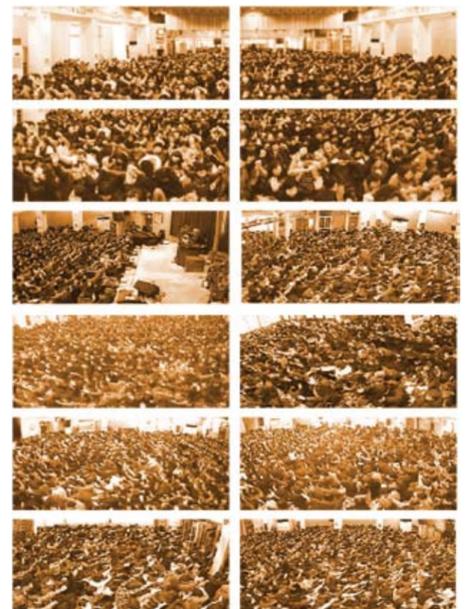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 기간 : 2013년 10월 17일(목) ~ 24일(목)
-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 문의 : (213)382-1450
-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57. 창조론의 기초(8) - 화석의 형성 과정

화석(化石, fossils)이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남긴 몸의 일부나 전부가 광물질로 대체된 것이거나 발자국 같은 생물체의 흔적이 보존된 것이다. 몸의 단단한 부분만 화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부분도 화석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가 남겨 놓은 모든 것들이 화석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화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

실현실에서 화석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자연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화석이 만들어졌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석이 들어있는 암석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본적인 설명을 하기에 충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창조과학자들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생물체는 진흙이나 모래에 갑자기 묻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이 뜯어먹어 버리거나 미생물로 인해 부패되어 화석으로 남을만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둘째, 진흙이나 모래가 움직이는 속도는 화석화된 생물체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력해야 한다. 화석들 중에는 15m이상 되는 모사소러스같은 수룡도 있고, 고래도 있는데 이것들이 화석으로 남으려면 순식간에 덮였어야 된다. 그 당시 엄청난 물리력이 동원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땅 위에 사는 공룡이나 포유동물들의 화석과 물고기나 조개 화석들이 함께 섞여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당시의 물의 속도가 육지까지 물이 밀려들어 오면 쓰나미와 같이 무척 빨라야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다. 넷째, 생물체의 유물이 들어 있는 진흙이나 모래층이 옮겨져 그 물이 굳어 제거되어야 한다. 이 생물체가 계속 물속에 묻혀있다면 화학물질

이나 미생물들이 그것을 녹여버릴 것이므로 화석을 만들만한 어떤 것도 남겨 놓지 않을 것이다.

노아홍수는 전세계의 대륙에, 심지어 최고로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존재하는 암석층 속에 들어 있는 화석들을 매장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격변이었다. 성경기록을 보면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아주 적다는 말이다.

공룡 발자국 화석: 모래나 진흙 위에 찍힌 발자국은 금세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어떻게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엄청난 물이 모래 등을 몰고 와서 대륙을 이불처럼 덮었을 때 금방 찍힌 발자국들이 모래로 채워져 그 발자국이 보존된 것이다. 흔적 화석으로는 새 발자국 화석과 물결자국과 빗방울 화석도 있다.

호박(화석): 어떤 나무는 상처가 날 경우 나무 진(수지, resin)을 내게 되는데 곧 단단하게 굳어 호박(amber)이 된다. 그러므로 호박은 화석화 된 나무진이다. 과거 지구역사 가운데는 전세계적인 대격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많은 나무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이다. 나무진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 때 안에 전갈, 거미, 곤충, 조류, 도마뱀 다리, 깃털, 포유류의 털, 효모나 세균 등이 갇히기도 하였다. 호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고 금이 가게 된다. 진화론자들은 호박들이 3천만-9천

불가사리 화석: 해변에서 죽은 불가사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썩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까?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사리 화석은 부드러운 몸을 가진 지렁이나 해파리 화석과 마찬가지로 진흙 속에 갇혀 썩어 없어지기 전에 재빨리 화석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들은 1년간 진행되었던 노아홍수 초기에 진흙과 모래들을 동반한 빠른 속도의 혼탁류(turbid current)에 묻혔을 것이다.

식물화석들: 전세계에서 발견되는 이관암(shale)과 석탄층에는 식물화석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것들 중에는 멸종된 것들도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식물들의 경우에는 모양이 완전히 똑 같다. 이 화석들을 보면 부드러운 잎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진흙으로 압도되어 화석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랜 시간과 더불어 딱딱한 부분만 화석이 된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다윈의 오해: 찰스 다윈은 부드러운 몸을 가진 생명체는 화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 지층과 그 속의 화석 증거들, 단회 전지구적 대격변 입증 “부드러운 생명체는 화석이 되지 않는다” 다윈 주장 잘못



**화석들이 보여주는 노아홍수 격변**

갑작스러운 사건을 보여주는 화석들이 전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전지구적인 격변의 증거들이다

홍수의 물이 빠져 그 지층들을 드러내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렸다.

모든 화석이 다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육상동물화석과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사람화석들은 빙하시대의 산물이다. 이 화석들은 노아홍수 후에 있었던 빙하시대에 생겨났기 때문에 지표 맨 위층에서만 발견된다. 홍수 기간에는 홍수의 물이 깊었고, 나무나 육상동물들과 사람들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기가 어려웠다. 화석으로 남지 않은 생물체들은 다 썩어 없어졌을 것이다. 물론 약간의 육상동물들은 물에 떠 있다가 부패되고 떨어져 나간 몸 조각으로 홍수 후기에 묻혀 화석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 수는 빙하시대에

만 년 되었다고 하지만 투명한 호박과 그 속에 잘 보존된 내용물들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졌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개화석들: 많은 조개화석들은 공룡들과 함께 발견된다. 그런데 그 조개들은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다. 부드러운 조개살도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로 순식간에 대체되어 딱딱한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개껍질이 부서지지 않고 살아 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화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조개화석들은 격변적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세속적인 화석 설명에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독일 쾰른의 석회암 층에서 발견된 오징어 화석은 다윈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윈은 역사적 사실인 대홍수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암석에 들어있는 증거를 잘못 설명하게 된 것이다. 부드러운 몸을 가진 화석들이 이미 많이 발견되었다.

성경은 불과 수천년 전의 창조와 단 한 차례의 전지구적인 격변만을 말하고 있다. 발견되는 지층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화석 증거들도 단 한 차례의 전지구적인 대격변을 말해주고 있다(빙하시대도 큰 사건이었지만 지구 전체가 얼었거나 지구 전체가 빙하에 덮이지 않았으므로 전지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수십억 년과 여러 번의 대격변은 진화론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짓 역사인 진화론 때문에 성경과 다른 창조 이론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한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하나님의 마음의 채널로 고정하기

다른 이들 신경쓰느라 교회 중직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기뻐하는 자녀라는 것 정말 잊고 무심하기 쉽습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내가 행복해야 사실은 남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음 속에 들려오는 소리에 시달립니다. 항상 두마음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귀의 소리도 다 내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는데 머릿속에 오가는 많은 생각들을 무심히 떠오르는 대로 무방비상태로 마음을 허술하게 내버려둡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기에 마음을 지키라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무 인이 박이도록 머리로 잘 알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마음은 떠오르는 허다한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도 떠오르는 생각들이 곧 마귀와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는 통로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기에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여겨서 그 소중한 마음을 완전 무방비로 둡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은데 왜 저리 사납고 차가울까? 왜 불법적인 자기 마음의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이의 티만 크게 보이는가? 그 이유는 마음속에 왔다갔다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에 비취 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해 떠오르는 자신의 잣대로 판단과 정죄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해 정죄 소리로 들리는 대로 말로 쏘아대니 그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활한 마음보다 자기중심의 판단대로 보는 자기 의의 교만의 소리에 익숙한 탓입니다. 마음의 채널이 자기 의에 고정되면 자기 의의 방송에서 방영하는 것만 들리고 보입니다. 방송채널을 바꾸어야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신의 교만이 남의 허물보다 더 크게 보여 할말이 없어지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방송에 채널을 맞추었는지?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넘치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널을 내 눈의 잣대로 선이나 약이나 따지는 방송으로 틀고 보니 다른 소리는 다 안들립니다. 자신이 평생 들어온 고정채널-자기 의의 채널이 너무도 익숙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듣고 보는 채널이 닫혀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하게 만들려고 막연히 노력들을 무지합니다. 하나님 음성듣기는 하나님 마음듣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못난 나를 그리 존귀하고 하나님에 기뻐하시듯 내 맘에 안드는 모든 다른 이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꼭 같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늘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남을 치는 정죄로 나를 치는 것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한번 자기 의가 발동하면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날 부수시지도 무너트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손으로 마귀가 구축해놓은 못된 자기 의의 습관에 속아 그대로 내가 계속 자기 의의 채널을 틀고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중독에 빠진 것을 손 놓고 있었어요. 말씀을 끼고 사는 자녀가 자기 의의 중독에 빠져 가는 곳마다 가인처럼 헐기를 부리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도무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는 고난들을 만나며 혼동과 아픔 가운데 죄된 습관을 하나씩 떨거우며 새로이 죄의 거품이 빠진만큼 철이 들어가고 자기 의의 거품도 차차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산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새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잘못 갔었네요. 미안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알고 그 채널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맞습니다. 성령님을 마음구석으로 밀어내고 제 생각으로만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것만 늦게 이뤄진다고 불평을 일삼았어요. 죄송해요.

온통 마음과 생각 속엔 나의 필요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님 부럽습니다. 이 시간에 공활을 베풀어주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채널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이동관 선교사의 이야기. 초년병 선교사의 좌충우돌하던 경험과 아프리카의 실제 현장을 맞닥뜨리며 가졌던 소박한 고민들을 담았다. 한 젊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솔직히 고백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꾸밈없이 풀어낸 진솔하고 순수한 고백의 선교 이야기.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 이동관, 박형란의 케냐 사랑 이야기 [www.kensarang.com](http://www.kensarang.com)  
이동관 지음 / 264면 / 12,000원

**《너와 함께 가라》**  
캘리포니아 Lake House(기도의 집) 대표로 있는 김정숙 목사의 간증집. 저자는 캘리포니아 호수 엘시노어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따뜻한 기도를 섬기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에는 잔잔한 위로가 흐른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인해 건딜 수 있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으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당황하며 주님을 부를 때 손 집어주시고 함께 올려주시는 주님의 동행 하심의 여정을 담고 있다.  
김정숙 지음 / 264면 / 12,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장'으로 유명한 정동제교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륙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가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춘 지음 / 264면 / 11,000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가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춘 지음 / 264면 / 11,000원

www.k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쿰란출판사**



목회서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파리 개신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 광장, 그리스 신트라그마 광장, 러시아 모스크바 알렉산드르프 공원, 그리고 미국 워싱턴DC 근교의 알링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무명의 용사 무덤들과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링턴 국립

묘지에는 제 1차,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에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신원을 모르는 5000명의 용사들이 오랜 세월동안 24시간 경비병(The Old Guard)들의 호위를 받고 누워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들은 그들의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무명의 용사 무덤(Tomb of the Unknown Soldier)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 비해 지명도가 높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뱀에 우상의 단을 세운 예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한 무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왕상 13:1-10). 바울의 선교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켜 바울 일행을 군중재판에 붙였을 때 에베소 지역 한 무명의 서기장이 지혜로운 말로 군중을 진정시켰습니다(행 19:35).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복음 안에서 칭찬을 받은 한 무명의 형제를 동역자로 보냈습니다(고후8:18).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무명의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마2장).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무명의 여인, 두 렘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은 한 가난한 과부, 시리아의 사성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명의 계집종 등등, 이름 없는 많은 무명의 여 용사들도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Here Rests. In Honored Glory. An American Soldier. Known But to God.”(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어 있다).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은 그곳에 묻힌 사람이 무명(unknown)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알려진(known), 이름이 있는 용사, 즉 ‘유명’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섬겼던 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이름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영원히 새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무명’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여러분은 절대 무명의 용사들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는 용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도 영원히 기억해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무명의 용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양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8-10)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영생주심”

브라질한인이민 50주년기념 남미선교음악회

남미복음신문(발행인 박재호 목사)이 주최한 한국인브라질이민 50주년기념 남미선교음악회가 지난 15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새소망교회(담임 박재호 목사)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됐다.



브라질한인이민 50주년기념 남미선교음악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음악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영호 목사 사회로 원철웅 장로의 기도, 김강현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던 후 박재호 목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속하시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선택해주셨다.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으며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Renato 목사(살롬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음악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영호 목사 사회로 원철웅 장로의 기도, 김강현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던 후 박재호 목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속하시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선택해주셨다.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셨으며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Renato 목사(살롬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음악회는 김용인 목사(멕시코 멕시코칼리한인교회 담임) 사회로 김상철 장로의 시작기도 후 임마누엘오케스트라(단장 한정상 안수집사, 지휘 고영 전도사)가 브라질국가 및 애국가 연주에 이어 “밝게 비춰라”, “승천가” 등 2곡을 연주했다. 이어서 Milton 목사(빠이네이아교회 담임)가 음악회를 위한 특별 기도를 했다.



지난 15일 세천교회에서 가진 필라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 참석자들

이어서 한국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가 축사했으며 김강현 장로가 동시통역(홀투갈어)했다. 연주는 황창권 집사(새소망관악



KYVC 제1회 자녀사랑찬양제에서 일반인청소년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자녀사랑, 바르게 키우는 주춧돌로”

남가주청소년비전센터 제1회 자녀사랑 찬양제

남가주청소년비전센터(KYVC 대표 김영길 목사, 이사장 김영대 목사)가 주최하고 남가주중부교협이 주관한 제1회 자녀사랑 찬양제가 22일 오후 6시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개최됐다. KYVC 이사장 김영대 목사는 “첫 번째로 자녀사랑 찬양제 개최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 바란다. 험악한 일 많이 생기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깨

우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찬양제를 마련했다. 이번 기회가 자녀를 더욱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게 되는데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소감을 밝혔다. 김영대 목사(중부제일연합감리교회 담임)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 1부 예배는 오병근 장로가 대표기도, 양희철 목사(뉴욕선교센터 대표)가 “우리의 피난처”(시46:1-11)란 제목으로 설교, 세리토스 시가 감사한인교회, 김영필 장로, 오병근 장로, 안도성 장로에게 감사패 증정, 남가주중부교협 회장 박소건 목

사(새순커뮤니티교회 담임)가 인사 말씀을 했다.

KYVC 사무총장 전동은 목사(미래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찬양순서에서는 카이로스미션워십댄스(단장 김민경 선교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리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 ‘은혜 아니면’, ‘주의 팔에 굳건히 서리’), 레위남성성가단(단장 이명원 장로, ‘시편20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일반인청소년합창단(지휘 Anne Williams, ‘Alleluia from Exsultate Jubilate’, ‘Tears in Heaven’), New Life Community Church(담임 Juno Smalley 목사, ‘Micah 6:8’), 아름다운동산교회(담임 최다니엘 목사, ‘복 있는 사람’, ‘승천(함께 하리라)’), OC원로목사중창단(지휘자 윤희두 목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싸우스베이한인교회(담임 안대진 목사, ‘참 좋은 주님’, ‘모두 기뻐해’), 에베레스트합창단(단장 이백호 목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 ‘별빛 따라 새 날이 왔네’), 감사한인교회(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화롭도다’)가 출연해 찬양했으며 마지막에는 참가팀들이 다함께 합창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필라교협 복음화대회 마지막 준비기도회

필라 복음화대회를 위한 마지막 준비기도회가 지난 20일 서머나교회(담임 박동배 목사)에서 열렸다.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동배 목사)가 대회를 앞두고 연속적으로 회원교회를 순회하며 성공적인 복음화 성회를 위한 이 준비기도회는 손석배 목사(부서기

사회로 안문균 목사(서기) 기도 이어 강승호 목사(중경회장)가 설교했다. 강 목사는 창35: 2-5을 인용, “고치자, 회복하자, 실천하자”는 제목으로 이번 성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 목회자가 고쳐야 하고 회복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항목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박동배 회장 사회로 뜨겁게 합심기도 한 후 이광영 목사(대내분과 위원장)와 전영현(중경회장) 목사의 특별기도 후 전영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필라 복음화대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열리고 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3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3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다운로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Simon Lee)

5310 Illahee Lane NE, Olympia, WA 98516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253-988-0313(Simon Lee) 773-206-3809(Hyomyeong Rhiew)

2013년 9월 1일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장학위원장: 이상진/운영부: 홍순백/ 서기:김정진/ 홍보담당:이상천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을 받습니다. 45개국어 복음화 선교를 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Table with 4 columns: Publication Title, Issue Date, Extent and Nature of Circulation, and Statement of Ownership. Includes data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dated Sep 14, 2013.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저지교협 정기총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천 목사) 정기총회가 오는 30일(월) 오후 6시 뉴저지리나교회(담임 김동욱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335-7357

## “2013 청년축제 Heaven Festival”

라이프라인장로교회(담임 유태웅 목사)가 설립 후 처음으로 갖는 “2013 청년축제 Heaven Festival”이 9월 28일(토) 오후 6시, 29일(주) 오후 3시에 본 교회당(59-26 Kissena Blvd)에서 열린다. 강사는 지용훈 목사(맨해튼 길거리 전도왕). ▲문의: (646)258-4161.

## 2013 밀알의 밤

뉴욕밀알선교단(단장 김자승)이 주최하는 2013 밀알의 밤이 오는 29일(주) 오후 6시 뉴욕장로교회(담임 이승환 목사)에서 열린다. 로봇다리 희망전도사 김세진(한국 장애인국가대표 수영선수)이 초청된다. 티켓은 20달러. ▲문의: (718)445-4442

## 뉴욕효신장로교회 김성길 목사초청 부흥성회

뉴욕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한국 수원 시온 소교회 김성길 목사(사진)를 초청, 지난 20일부터 사흘간부흥성회를 가졌다. 김성길 목사는 22일 주일예배에서 “복 있는 사람”(시1: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성경은 복과 화를 제시한다. 믿음의 사람은 복이 아닌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피할 것 즉



약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함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 결코 한 눈 팔아서도 안된다”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좇아간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된 인생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만들어가는 비결이요 교회와 가정과 자신의 진정한 부흥의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자”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19일 9월 월례회를 갖고 11월 후원자의 밤 및 회계 보고 등 회의를 가졌다. 뉴욕은총장로교회(담임 오태환 목사)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오태환 목사 인도로 기도 임병남 목사, 설교 박진하 목사, 축도 최창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본문으로 “어떤 자세로 목회하고 섬겨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며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분노, 시기 등이 많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신다. 한 어린이를 위해 배푸는 사랑도 나의 자량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

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린생명을 구원하는 기아대책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는 박진하 회장 사화로 유상열 사무총장이 진행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목사는 11월 행사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가입 및 안내서 발간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다짐했다. 회계보고는 권캐더린 목사가 6, 7, 8월분을 보고했다. 아동후원은 수입 10,708달러, 일반재정은 수입 4,924.52달러, 지출 1,326달러, 잔액 3,598.52달러로 보고했다. 이날 이찬양 간사의 페루, 아르헨티나 방문보고가 있었다. 이 간사는 페루 사람의 집짓기 등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한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는 24일(목)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장소는 미정. (유원정 기자)

# 뉴욕교협 39회 정기총회 10월 17일

## 뉴욕초대교회에서...11일 오후5시 선거인 등록마감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제39회 정기총회가 10월 17일(목) 오전 10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총대는 교역자대표 1인, 평신도대표 1인(사장) 제39회 정기총회가 10월 17일(목) 오전 10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총대는 교역자대표 1인, 평신도대표 1인(사모)는 평신도대표로 인정 안함)을 포함할 수 있다. 교협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

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10월 11일(금) 오후 5시까지 선거인 등록을 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협은 선거에 관련해 유의해

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당일 가입이 허락된 신입 교회는 차기 회부터 선거권이 부여된다. △모든 회원교회는 39, 40회기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투표는 따로 마련된 투표실에서 한다. △회비는 등록일까지 교협사무실로 직접 납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회비는 한 회원교회당 120달러. (유원정 기자)



AYC 이사회 제19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청소년센터(AYC) 이사회 제19회 정기총회

### 새 대표 최창섭 목사, 새 이사장 이수일 박사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이사회 제19회 정기총회가 23일 저녁 에베셀선교교회(공동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려 새 대표 표에 최창섭 목사, 이사장에 이수일 박사가 선임됐다. 최창섭 목사는 “청소년센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협과 더불어 회관을 옮기는 것, 현재 하고 있는 학원사역과 다민족 선교로의 사역 확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수일 박사는 재정적인 문제해결과 더불어 2세대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는 청소년센터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이날 김기호, 이지용, 송일권, 김영철 목사 등 4명의 새 이사가 영입됐다. 현재 청소년센터 이사는 32명이지만 이날 8명만 참석했다(취임 17명). 감사(김영철 목사)와 회계(장경혜 목사) 보고에서 이사회는 2013년 수입결산 286,064.67달러, 2014년 예산 182,870달러를 인준했다. 전년도 결산은 36만4,030달러였다. 이공삼 목사는 총무보고에서 “AYC와 KYC의 갈등이 해결됐다”

며, “지난 3-4년간 KYC와 학원사역의 충돌과 교협산하기관 이름사용으로 인한 교계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병합을 시도했으나 본 AYC만이 교협산하의 적법기관으로 남고 KYC는 독자적인 길로 가기로 결의해 장기간의 갈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또 우드사이드 소재 청소년센터 건물을 92만 달러에 매각했고 교협과 함께 새 건물구입을 위해 35만불을 CD에 입금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청소년센터 사무총장 김현돈 목사가 사임하고 김지욱 전도사가 임시로 부임했다. 프로그램 행사 보고에서는 총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지욱 전도사가 부모교실, 감사와 후원의 밤, 청소년 할렐루야, 학원사역, 상담 등의 업무를 보고했다. 또 직전대표 최예식 목사와 이사장 이대연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드린 개회예배는 최창섭 목사 인도로 기도이공삼 목사, 설교 최예식 목사(“청소년 심리의 샘”, 마13:21-23), 축도 최창섭 목사의 순으로 진행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제30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회장 김영환 목사.

##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제30회 정기총회

### 새 회장에 김영환 목사, 부회장 김재용 목사

미남침례회뉴욕한인지방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뉴욕효성침례교회(담임 김영환 목사)에서 열려 신임 지방회장에 김영환 목사를 선출했다. 김영환 목사는 “침례교 지방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며 도움이 필요한 회원교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환 목사는 남침례회가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하며, 남침례회를 알리는 사역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연례행사로 해오던 송년모임, 사모위로의 밤, 야외체육대회, 목회자가족수양회, 연합청소년수련회 등의 사업을 계속하며 그동안 중단

됐던 침례교 연합집회 개최의 뜻을 밝혔다. 이날 선임된 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영환 목사 △부회장 김재용 목사 △총무 이재홍 목사 △서기 안승백 목사 △회계 안병재 목사 △감사 신석환 목사, 김병근 목사 △분과위원장: 선교사회분과 박진하 목사, 교육분과 김재용 목사, 청소년분과 노기송 목사, 여성분과 이영미 사모. 시취위원회는 추후 확정한다. 미남침례회한인교회는 캘리포니아지역에 147개, 텍사스에 75개가 있으며 뉴욕에는 30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뉴욕장로연합회 제 15차 조찬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이보춘 장로)가 지난 19일 제 15차 목요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설교는 이병홍 목사(새가나안교회 담임)가 “하나님의 동역자”(고전3:6-9)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예배는 부회장 김주열 장로 인도로 특별기도 순서는 △추석절기를 감사하며/김명신 장로

△지나온 회기를 감사하며/이계훈 장로 제목으로 기도했으며 특송은 임형빈 장로가 했다. 이날 지난 8월 31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열렸던 선교대회 보고를 준비위원장 정권식 장로가 했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 담임목사 청빙공고



The Little Flock Church

## 뉴욕 어린양 교회

### • 청빙 자격

1. 1958년 1월 이후 68년 12월 이전에 출생한(만 45세 이상 55세 이하) 분
2. 정규대학, 정규 신학대학 졸업자(M.Div 이상)
3. 이민 목회 5년 이상 사역하신 분
4. 영어, 한국어 능통한 분
5.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 이상된 분
6.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 구비서류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2.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확인서 및 현재 소속 교단 확인서
4. 최근 6개월 내 설교 CD 2부
5. 영주권 또는 시민권 공증 사본
6. 추천서 1통

### • 서류마감

2013년 10월 31일(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보내실 곳

The Little Flock Church  
주소 : 69-38 47 Ave., Woodside, NY 11377  
문의: 718-899-8309

# “삶에서 예수 냄새 풍겨라”

## 제29회 HYM청년연합집회 강사 서석훈 목사

남가주청년연합회(HYM 대표 더 클러스킹)가 주최한 제29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거룩한 산제사’라는 주제로 21일과 22일 양일간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서석훈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청년부 담당)는 주제인 ‘거룩한 산제사’에 맞게 청년들의 삶에 대해 도전을 심어주었으며 양일간 동신교회 본

당을 찾은 남가주 청년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설교를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룩한 산제사”(롬12:1, 2)라는 주제로 첫날 설교를 한 서석훈 목사는 “한국의 인구 중 개신교인들은 18~20%라고 한다. 그러나 신뢰도는 11%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실적이 충분치 않

아서 나타난 결과이며 하나님과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성도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가 되어야 한다. 예수 잘 믿으면 힘들고 고난이 오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생길 때 생기는 고난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시기에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다. 성도들에게서는 예수의 냄새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날 ‘은혜를 입게 하소서’(느 1:1-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한 서석훈 목사는 “노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자신의 아픔이라 여긴 자였다. 21세기 미국에서 자라나는 이민 2세대들은 조국 대한민국이 가진 아픔을 바라보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9회 집회는 HYM청년연합 찬양팀(리더 송민우 목사)이 찬양인도를 했으며, 김대일 목사(다사이플교회 청년부 담당)와 구봉주 목사(감사한인교회 청년부 담당)가 첫날과 둘째 날 개회기도를 했다. 또 남성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청년부 담당)와 설성훈 목사(은혜한인교회 청년부 담당)가 봉헌기도를, 그리고 손병렬 목사(남가주동신교회 담임)와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제29회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스태프들과 찬양팀멤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남가주살롬교회 입당예배에서 김준식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고 있다



제6회 러브인뮤직 정기연주회에서 차인홍 교수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다

## 6회 러브인뮤직 정기연주회

###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제로

러브인뮤직(대표 변홍진)이 주최한 제6회 정기연주회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이란 주제로 지난 21일 오후 5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변홍진 대표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러브인뮤직이 올해 6번째 정기연주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별히 이번 연주회는 어린 시절 가난과 장애로 24세까지 초졸 학력이 전부였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간승리의 증인인 차인홍 교수가 참여해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선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주회는 오케스트라 러브인뮤직앙상블(지휘 박윤재)이 ‘Grace of God’, 드라마 하얀거탑

OST 중 ‘B Rissette’를 연주했으며, 바리톤 권영대 교수, 차인홍 교수, 박트리오, 러브인뮤직 어린이오케스트라 등이 출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

### 남가주살롬교회 22일 입당예배

남가주살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4시 본 교회 예배당(20050 S Vermont Ave, Torrance)에서 입당예배를 드렸다.

김준식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저희 살롬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 성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살롬교회를 인도해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앞으로 남가주살롬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독고찬웅 장로가 기도를 했으며 조홍 목사가 영어설교를, 살롬연합성대가 찬양, 그리고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가 “다윗왕국의 시작”(삼상 22: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안동성 목사(토펜스제일장로교회 초대목사)와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담임)가 축사했으며 공영웅 장로(본 교회 건축위원장)가 건축경과보고를, 이은구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본 교회 이무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본 교회 담임 김준식 목사의 예배

##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 강의 USB(MP3) 발매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자녀영성성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해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중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만형, 김혜전 목사로서 강의한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 서부교회게 게시판



**하늘영광교회 설립2주년 감사예배 및 콘서트**  
하늘영광교회(담임 차권희 목사)가 설립2주년 감사예배 및 감사찬양 콘서트를 갖는다. 설립2주년 감사예배는 29일(주) 오전 11시 30분, 콘서트는 10월 6일(주) 오후 2시30분에 각각 열린다.  
▲문의: (714)827-8869, (213)598-6878

**나성세계로교회 장로장립예배**  
나성세계로교회(담임 임지석 목사)는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아 이종근 집사 장로장립예배를 10월 6일(주) 오후3시에 개최한다.  
▲문의: (213)219-9229

**ABC 가을특강**  
ABC 상담대학교육원(대표 여명미, 원장 고명희)은 6주과정의 가을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성경적 부모교육은 25일부터 10월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터스틴제일침례교회(1618 E. 17TH ST. SANTA ANA)에서 열린다. 강사는 여명미 박사(ABC 상담대학교육원 대표). 또한 상한심령 치유와 뇌정신건강은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ABC 교육원(1633 E. 4TH ST. #236, SANTA ANA)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회 10달러이며 6주간 과정을 일시불로 지불할시 50달러를 내면 된다.  
▲문의: (714)351-2529, (714)287-9101

**뉴미디어 스마트목회전략 세미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회원 교회들의 올바른 뉴미디어 목회 전략을 소개하고 교회 환경에 맞는 스마트폰 목회 및 선교 I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뉴미디어 시대 스마트 목회전략 세미나'를 오는 10월 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한다. 등록비는 없으며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된다.  
▲예약 및 문의: GBC (213)381-1190, CTS (562)565-2234, 남가주교회협 (213)255-1725

**세계의료선교회 건강검진**  
세계의료선교회(대표 김인철 목사)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9월 28일(토)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5시 다우니제일교회(안성복 목사) △10월 5일(토) 오후1시부터 5시 오렌지힐교회(백창호 목사) △10월 12일(토) 오후 1시부터 4시, 13일(주) 오후 12시30분부터 5시 로즈펠리스 연합감리교회(신병욱 목사) △10월 20일(주) 오후 12시부터 5시 돌로스교회(서보천 목사) △10월 27일(주) 오후1시부터 5시 갯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문의: (818)621-4256

## “청교도 정신 가진 일꾼으로 교육할 터” ABC교육위원 우수연 후보 후원의 밤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수연 후보 선거 후원의 밤이 세리토스 팍 이스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우수연 후보(사전 가운데)가 이날 참석한 한인교계지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우수연 후보를 위한 선거 후원회의 밤이 22일 오후 5시 세리토스팍

이스트커뮤니티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선거후원금 모금과 저녁식사 만찬의 밤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유 후보를 지지하며 후원하

는 2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하여 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2년전 교육위원 선거에서 24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고배를 마신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현역 교육위원인 제임스강 위원의 출마포기로 인해 한인사회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선거에 뛰어든게 됐다.

이날 우수연 후보는 “현재 교육제도가 아이들에게 정치논리와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해 가치관혼란을 야기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의 건국정신인 청교도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미래의 일꾼과 지도자로 교육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의 밤에는 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인 민경엽 목사와 전 회장인 박용덕 목사 등 교협관계자들과 장로 권사들로 구성된 후원회 사람들이 참석해 유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빛선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본교회 3대 담임목사로 내정된 윤대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사랑의빛선교회 “새로운 꿈을 향해 전진” 새 담임내정 윤대혁 목사 초청 부흥회

사랑의빛선교회는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새로운 꿈을 향해 전진’이라는 주제로 20일부터 22일까지 최근 본 교회 3대 담임목사로 내정된 윤대혁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회를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한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집

회는 김정은 장로가 기도를 했으며 연합성대가 찬양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출4:10-17)이라는 제목으로 윤대혁 목사가 설교했다.

윤 목사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산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에 빠지면 그게 전부인줄

알고 산다.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을 들었으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헌신해야 하는데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우리 안에 문제 실패 의식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이민자로 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신분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다.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없다’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다시 시작하라고 도전을 주신다.”고 강조하며 사랑의빛선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지난 몇 개월간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주님께 서 더 놀랍게 쓰고자 하는 시간이라고 위로했다.

(박준호 기자)

# 화합보다 개혁...백남선 목사 부총회장 당선

## 예장합동 제98회 정기총회, 회장엔 안명환 부총회장

한국 최대 장로교단 예장합동 제 98회 정기총회가 지난 23일 전체 총대 1538명 중 14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13년 만에 치러진 예장 합동 목사부총회장 직점선거에선 백남선(65·광주 미문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총회장에는 목사부총회장을 지낸 안명환(68·수원 명성교회) 목사를 추대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신길 장로(65·대구 북성교회)가 선출됐다.

1446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저녁 진행된 선거에서 백 목사는 828표를 얻어 김영우(서천읍교회) 목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백

목사는 광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다. 광주신학교 총무처장, 총회 규칙부장, 서기, 광주교단협의회장, 기독교신문 부이사장을 지내고 현재는 총신대 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호남권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백 목사는 "한국 최대의 교단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으로서 법이 지켜지고 공의가 바로 서는 투명한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자립 교회와 이단 대책 문제에 주력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굳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목사 당선은 화합보다는 개혁을 택한 총대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

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의 회와 총회정상화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총회 개혁인사들의 조사와 징계를 명시한 '97회기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가 폐기처분됐다. 황규철 총무 해임안도 현의안에 포함됐다. 총대들의 교단 개혁 열망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장 합동 총대들은 24일 오후 회무에서 '제97회 총회파행사태후속처리위원회'의 52페이지 분량의 보고와 보고서를 모두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7회 총회 파행사태 이후 총회 개혁을 요구했

던 오정호 이상민 서창수 송영식 목사 등 관련인사와 기독교신문에 대한 조사와 징계안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 8개월간 총회 전, 총회 중, 총회 후로 나누어 교단 개혁 인사 등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했던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무효가 됐다.

정준모 전 총회장과 황 총무의 해임안도 현의안에 포함됐다. 총대들은 총회현장에서 배포된 14페이지 분량의 현의안에 이 안건이 포함되지 않자 강력 항의했다. 이상민(대구 서문교회) 목사는 "46개 노회에서 열린 총회장·총무 해임안도 현의안을 어떻게 총무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는 거냐"면서 "반드시 총회 현장에서 해임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총대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안명환 총회장은 해임 현의안 추가 여부를 논의에 부쳤고 결국 현의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

# 침례교회서도 '여성목사' 나온다

## 제103차 정총 '위로하고 화합하는 총회 되길'

앞으로 침례교회에서도 여성 목사가 배출된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제 103차 정기총회 둘째 날인 24일 관심을 모았던 여성 목사안수 안을 투표자 298명 중 찬성 2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교단 규약 제23조 1항 '지방회 규약과 목사, 전도사, 집사 안수 규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에 '단 여성 목사를 허용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목사 안수는 이번 총회가 끝난 후 바로 시행된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여성목사 안수 안에 대해 총대의 과반이 찬성했지만 규약 개정엔 필요한 3분의2를 넘지 못해 부결되는 등 기침 여성 목사안수는 7년간 논쟁거리가 돼왔다. 한 대의원은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백석, 성결 등 보수적인 다른 교단도 이미 여성 목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세를 거스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제1부 총회장을 역임한 사람만 총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바뀐 규정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총

회에서 같은 내용의 규약이 신설된 데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기침은 규약에 최고 권위를 두고 있으며 규약이 신설되면, 규정도 개정된다. 26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여의도 총회회관의 부채해결방안과 오류동 총회회관매각 청원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134명의 목사와 197명의 전도사가 인준을 받았다. 또 한빛지방회가 인준을 받아 지방회 수가 123곳으로 늘었으며 86곳의 교회가 새로 기침에 가입했다. 기침 관계자는 "교단 소속 교회가 지난해 2986곳에서 86개 교회가 더 늘어 3000교회(3072곳) 시대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총회기간 중 순천시민을 초청해 부흥성회를 여는 것도 이번 기침 총회의 특징이다. 지난해 23일 저녁에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집회를 인도했다. 25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큰민음제일침례교회 황준서 목사가 주강사다. 기침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는 "이번 총회는 교단 내의 문제를 처리하는 자리를 넘어 상대적으로 교세가 약한 순천지역에 침례교의 신앙을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장고신 주준태 목사 총회장 압도적 지지

## 63회 총회 개막...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철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의 주준태 부총회장이 찬반 투표를 통해 총대 477명 중 430명의 지지를 얻어 총회장에 올랐다.

예장 고신은 24일 충남 천안시 삼룡동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63회 정기총회를 열어 주 목사를 총회장에 선임하고 목사부총회장에 김철봉 목사를 선출했다. 장로 부총회

장은 단독 후보로 나온 엄송우 장로가 찬반 투표를 거쳐 뽑혔다.

주 신임 총회장은 "앞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고신 교단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롬1:16)이다. 개회예배는 직전 총회장인 박정원

목사의 인도로 드러났다. 주 신임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밖으로 이단과 안티기독교 세력의 공격이 있고 안으로는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 같은 신학적 혼란 등 한국교회는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우리 모두는 복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설교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의 주요 현안은 고신대와 고려신학대학원의 분리 문제 등이다. 전라노회는 "구조조정 없는 고신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에서 신대원을 대학의 소속기관으로 둘 수 없

다"며 "고려신학대학원을 고신대에 독립시켜 대학원대학교로 만들 어줄 것"을 현의했다.

또 지난 7월 고신 유지재단 산하 고신인문사 사장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동봉투 사태'와 관련, 신임사장인 최재호 장로의 인준여부도 다뤄진다. 북한선교위원회는 총회차원에서 북한에 피랍돼 2007년 사망한 고(故) 김동식 목사의 유해송환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습반대법 제정안' 통과여부와 수년간 논의된 고신과 합신 교단간의 통합 안건도 논의된다.

# "더욱 겸손한 종이 되겠습니다"

## 오정현 목사 6개월 만에 복귀 첫 주일예배 설교

"지난 6개월 간 성도 여러분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더욱 겸손한 종으로 교회 내실화와 제자훈련에 힘쓰겠습니다." 논평표절 문제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자숙에 들어갔다가 22일 사랑의교회 강단에 다시 선 오정현 목사는 성도들 앞에 용서부터 구했다.

오 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며 섬기는 성도가 될 것을 부탁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며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사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형제를 감싸고 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과 교회의 가치는 사랑의 크기에 있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은혜의 채무의식을 갖고 '끝까지 사랑'의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강조

했다. 교회의 방향성이 정죄나 비판이 아닌 절대불변의 사랑에 의한, 새로운 차원의 갈등 승화에 있다는 뜻이었다.

성찬식 집례를 위해 19명의 장로들과 강단에 선 오 목사는 손을 잡고 "사랑의 전사(戰士), 치유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간구했다.

예배를 마친 박태철(57)씨는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진실, 모순을 갖고 있는데 이번의 고통은 교회가 성숙해가는 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면서 "한국교회가 처한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사랑의교회 마저 밀린다면 복음전파의 역할을 수행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가 분명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배 참석을 위해 40분 전부터 줄을 서고 있던 윤모(19·여)씨는 "성도 중엔 오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밖에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 요동이 없다"면서 "새 성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다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웃었다.

우려했던 예배 과정에서의 충돌

은 없었다. 오 목사는 이날 2-6부 예배를 인도했으며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30m이상 줄을 서서 기다렸다. 계단까지 꽉 들어찬 성도들은 오 목사가 등단하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일부 성도는 '육환복 목사'의 영적 아들이라면 사임해야 한다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평신도 리더와 순장, 교구

장 등으로 구성된 평신도협의회와 당회서기, 사역장로회장은 '교회 개혁·갱신을 위해 오 목사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신도협의회는 교회 외부에 '오정현 담임목사회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는 대형 플래카드도 부착했다. 교회는 오는 11월 말 서울 서초동 새성전 입당에 맞춰 제2기 사역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주, 교회 53% '어린이부' 통합 운영

## 어린이부 없는 곳도 8곳, 200명 이상 한 곳도 없어

제주도의 교회 상당수가 어린이부(초등 1-6학년)학생 수가 적어 연령에 따른 교육부서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담당 교역자 및 교사 수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김도일 교수가 기독교교육논총 제34집에 게재한 '교육 선교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지난 1-4월 제주도내 전체 교회 396곳 중 75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유년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소년부(5-6학년)를 다 갖춘 교회는 22곳(29.3%)에 불과했다. 2개 부서(1-3학년, 4-6학년)로 운영하는 곳은 5곳(6.6%), 1-6학년을 하나로 묶어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40곳

(53.3%)이었다. 어린이부 자체가 없는 곳도 8곳(10.6%)이나 됐다.

어린이부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곳은 한곳도 없었으며 100-199명이 5곳(6.6%), 50-99명은 17곳(22.6%), 20-49명이 32곳(42.6%), 5-19명은 12곳(16.0%), 어린이가 없는 곳은 7곳(9.3%)이었다.

교육목사나 전도사 등 교육담당 교역자가 없는 곳은 28곳(37.3%)이었다. 교사 수는 6-10명인 곳이 21곳(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가 없어 담임 목사나 사모가 그 역할을 대신 하는 곳은 10곳(13.3%)이었다. 임명 전 교사훈련을 하는 곳은 6곳(8.0%)에 불과했다.

#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 당선 무효"

##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수습단계 교단 또 혼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현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이 교단 특별재판위원회에서 무효로 판결났다. 전 감독회장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지난 5년 동안 내홍을 겪었다가 이제 막 수습 단계에 접어든 감리교단이 또 혼란을 겪게 됐다.

기감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현상규)는 24일 신기식 목사 등 3인이 제기한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전 후보 등이 6월 18일 17시경 청주지역 L호텔 커피숍에서 유권자인 J장로 등 1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만원씩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구선거법 제19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감독회장 집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판위 판결 결과는 잘못된 증거와 함께 반증의 기회도 없이 이뤄져 절차상 오류가 명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판위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냐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기감 특별재판

위가 담시제임을 감안할 때 그의 발언은 사실상 사회법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 감독회장은 "판결문에 의하면 6월 18일에 청주지역에 갔다고 했는데, 이날짜에는 청주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서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는 당일 비슷한 시각에 강원도 원주 지역의 한 호텔에서 감신대 동문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일주일 뒤인 6월 25일에 청주지역 장로연합회 회장 초청으로 인사가 청주를 방문한 했지만, 식사를 제공하거나 여비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기감은 당분간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감 정정규정(제140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7항)에 따르면 감독회장 유고시 30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현직 감독 중 연급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시의장은 총회 실행부위를 소집,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연회 김영현 감독이 최고 연장자다.

#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점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Dry Cleaning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아 \$11.99 UP TO

FREE DELIVERY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죽, 카페트, 밍크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 남가주 자마대회 열린다

## 11월 7-10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자마(대표 김춘근 장로)가 주최하는 2013 남가주 자마대회가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앞두고 지난 19일 JJ 그랜드호텔에서 종합설명회를 가졌다.

강순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설명회는 대회 영상 소개 시간, 공동대회장 민경엽 목사(OC교회회장), 실행위원인 박성규 목사(주님세움교회 담임)가 나서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정한나 사모(남가주 광영교회)가 자마대회 참가자 부모 간증을 했다. 이어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합심 기도했으며, 대회 총무 송규식 목사가 마침기도를 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춘근 교수, 권준 목사, 박수용 장로, 제이박 목사 등 감사진을 비롯해 CCM 가

작각성집회를 한바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국과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한다. 누구의 이익이 아닌 오직 영광 받으실 예수님 한분만 바라보며 모여서 이 땅에 영적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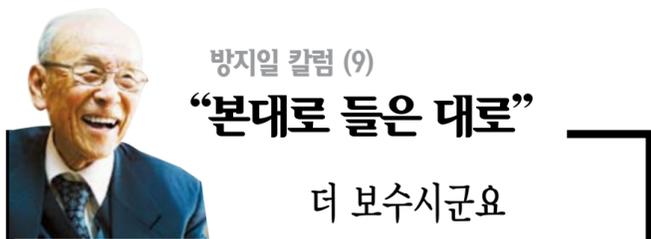
말씀에 이어 자마 대회 영상 소개 시간, 공동대회장 민경엽 목사(OC교회회장), 실행위원인 박성규 목사(주님세움교회 담임)가 나서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정한나 사모(남가주 광영교회)가 자마대회 참가자 부모 간증을 했다. 이어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합심 기도했으며, 대회 총무 송규식 목사가 마침기도를 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춘근 교수, 권준 목사, 박수용 장로, 제이박 목사 등 감사진을 비롯해 CCM 가



오는 11월에 열리는 남가주자마대회를 앞두고 열린 종합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회를 위해 합심기도하고 있다

수 소환과 링컨 부르스터 등이 초청되며, 이밖에 많은 전문인들이 강의하는 선택세미나가 마련된다. 분당은 영어권 2세들 집회로 열리며, 한어권 청년은 월드프레



방지일 칼럼 (9)  
“본대로 들은 대로”  
더 보수시군요

나는 어느 집회 후에 “더 보수시군요”의 말을 들었다. 자기네 목사보다 더 보수는 말인데 하게 들었다. 어떤 좋지 않은 뜻에서는 아니었다. 자기교회나 보수로 나가는 것을 기뻐한 분으로 더 보수란 말은 자기 비위에 맞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한번더 생각하게 된다. 좀 진보적이어서 한다면 말로 받을가 뒷받침 받지 말고 앞에 것을 당기어 나가야 할 것도 아닌가 하는 심정도 든다. 부산지방 집회에 갔더니 많은 목사들도 모였다. 주최 교회에서 점심에 다 초대했다. 점심 먹으면서 어떤 젊은 목사가 “목사님 살아생전에 힘껏 말씀하세요. 목사님 가시면 그 복음은 없어질 것이예요” 한 말도 나는 늘 기억하고 있다. 좋은 의미로 ‘방’ 목사는 너무 케케묵은 목사라 비웃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으로 근자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희미해졌다. 앞으로 더 희미해진다. 피의 복음은 없어진다 함을 염려하여 속화됨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라 들리기도 했다.

나는 지금 그 말을 되씹어 본다. 늙은 사람이 주체받게 해의를 자주 드나든다. 지병도 있으면서 어디서 쓰러지더라도 하면 교회나 자녀에 게 짐이 되는 것인데 이도 염려하나 내가 받은 복음은 전해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이다. 복음이 희미해져 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피가 희미하여 가는 듯 해서이다. 이스라엘 집 문살주 문인방에 피가 흘러야, 핏방울이 맺혀져야 심판의 천사가 넘어갈 터인데 피가 말랐다. 피가 퇴색했다면 물로 닦아보아 전에 피 흘린 흔적이라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선혈이 흘러야 넘어간다. 처음 믿을 때 피는 분명히 발려졌는데 이제는 말랐고 퇴색한 듯 하다.

피가 선명하게 흘러야, 핏방울이 맺혀야 하겠다. 죄는 바로 인식해야 피가, 신선한 피가 흐른다. 죄는 피나게 찾아내어 고하는 즉시로 핏방울은 맺힌다. 이렇게 선명한 피가 흐르게 하자는데 내 의도가 있다.

“더 보수시군요” 현대화한 현실에서 피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함을 더 절감한다. 그 선명한 피를 흐르게 함에도 케케묵은 그런 길보다 시대적으로 좋아하는 길은 없을까 여기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인가. 보수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이라면 큰 착오이다. 보수신앙은 비교 종교가 아니다. 높은 윤리관이 아니다. 교인들이 전진 진보를 역제하는 일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시어 제물로 내 죄를 속죄하심을 믿어 사죄함 받는 속죄구령의 사실을 바로 받게 함이 보수 신앙의 본질이다.

“더 보수시군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건 속죄 구령의 복음신앙을 받아 전달함으로 족하다. “끝까지 그렇게 해주세요”의 격려로 받은 것이요, “좀더 새롭게 전할 수는 없어요”로도 들을 수 있다. 그 길은 어떠한지 속죄 구령의 복음중심임을 믿는다. 복음이 희미하여짐을 염려하여 “더 보수시군요” 한다면 이 같은 선동양지를 갖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동지를 얻어 구원의 복음이 확증될 수 있다면 만족하겠다.

“더 보수시군요” 말이야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이 적극적이면 더 좋을 수가 없다. 소극적 면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의 길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할 만하기도 해서 나는 좋게 받아들인다.

“더 보수시군요” 얼마나 현대신학들이 종교의 범주 내에서 제 뜻을 하는지 모르거나 복음 영역에선 너무 많이 인위적 되었고 또 변질되어 감을 같이 걱정할 만하다. 얼마나 진보적 제단이 많기에 이렇게까지 말하는가를 볼 때 더욱 책임은 크다. 엘리스 같이 감정의 영감만이 아니라 병감질의 영감을 받지 아니하고는 몰몰트 말려드는 이 사조를 당하기 어렵다. 속죄의 어린양의 피를 모독하는 말까지 들릴 때는 아연함을 금치 못한다.

속죄에는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다. 이 피를 모독하는 자는 사유함을 모독함이라, 그 심판의 날이 너무 두렵다. 한 생명이라도 더 화급하게 건져내야 하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더 보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독선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보수는 안된다. 바리새인같이 보수 운운 하면서 외식자가 될까 염려스럽다. 보수 운운하면서 범주함이나 그 보수로 면한다(면죄 받는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보수라는 연막 안에서 갖은 죄를 범한다면 그는 화잇을 자이다. 크게 삼가면서 보수신앙을 고수 전달해야 한다.

(1996년, 1권)

# “모든 삶에서 모범을 보이라!”

## 하와이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설립41주년 행사

하와이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담임 조일구 목사)는 설립 41주년을 맞아 부흥성회 및 임직식을 가졌다.

서달용 목사(경기도 안성 중앙비전교회 담임, 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 부이사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부흥성회는 13일부터 15일 저녁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서 목사는 ‘오직 예수’(마 17:1-8), ‘오직 성령 충만’(눅 11:5-13), ‘오직 믿음’(히4:12-13), ‘복있는 사람’(시1:6), ‘교회란?’(엡2:19-22)의 제목으로 각

각 말씀을 전했다.

한편 주일오전 11시 예배시간을 통해 도영희 사무장으로 안수임직과 김정숙, 박애순, 홍그레이스 안수집사의 시무와 안수 임직식을 각각 가졌다.

이날 임직자들을 절차에 따라 훈련을 받고 총성된 일군이 될 것을 다짐했으며 조일구 담임 목사는 임직자 교육을 통해 나뉘던 내용들을 되짚으며 임직 받은 자들이 영적생활과 일반생활의 모범이 되는 삶을 위해 축복했다.

(이성자 기자)



임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후원에 감사”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단장 장영순 지휘 조한우) 창단 27주년 기념 제 14회 정기연주회가 22일 오후 7시 30분 원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에서 개최됐다.

단장 장영순 권사의 인사말과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의 기도 이어 단에 오른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원들을 ‘하나님께 찬양드리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랑의 주 예수]를 선사했다.

이날 특별 출연한 테너 양두석 씨는 ‘항해자’, ‘감사’, ‘사랑 메들

리’, ‘터’를 불러주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극동성가단의 ‘은혜 아나니’, ‘주는 반석’ 등으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날 장영순 권사는 불합속에 서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합창단을 후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귀한 찬양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최경식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찬양담당)의 축도로 마쳤다.

(이성자 기자)



제 14회 정기연주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재미기독교여성합창단

# 교역론 도와드립니다.

(516)227-1203, revpakm@gmail.com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p>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인대학: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동요회: 오전 6:30 EM 대학: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전 11:30 주일 4부(EM): 오후 11:00 EM 대학: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아예배) (KCC/한국어예배) 주일 4부 예배: 오후 11:10</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8:00 금요 예배: 저녁 7:30</p>	<p><b>등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 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아침예배: 오전 9:30 3부 아침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2:30(청년) 주일예배: 오후 12:30(청년)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국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b>디럼 교회</b>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p>	<p><b>새천안교회</b> 담임목사 :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b>미주영광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5:30</p>	<p><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 김만수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후 8:00(월-금) 금요예배: 오후 8:00 중, 고, 대: 오전 11:00(주일)</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4: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11:00</p>	<p><b>엘마인침체교회</b>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b>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민중선)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문인예배: 오후 6:0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제자학교: 3:30(월-토), 6:00(토)</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영아) 주일 4부 예배: 오전 12:3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 찬양: 오후 7:30</p>	<p><b>코너스톤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선교 펴기

## 영화선교

값없이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니라”(계22:17).

지난 7월10일 밴쿠버 발 서울 행 비행기를 탔을 때 하나님이 태평양 상공에서 뷰티풀 차일드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뷰티풀 차일드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며 원주민이라는 한 민족을 살리는 생명수(water of life)이자 갈등과 반목의 땅 아메리카를 치유하는 빛(light)이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눕니다.

1. 5월에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에 응모해서 기독교 영화로는 처음으로 DCP(극장상영용파일) 작업 협률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2. 6월에 밴쿠버 코스타에서 30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스코샤뱅크 씨어터에서 영화 상영을 함으로 밴쿠버 다문화타운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3. 7월에 캐나다 백인 침례교단 목사님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백인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한국인을 사용하셨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4. 다시 들어온 한국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무실과 작업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안양 새중앙 교회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영화 시사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5. 예장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제작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9월 4일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550명 총대들을 모시고 영화 상영했습니다.

6. 감리교단 선교국에서 영화 지원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0월 11일 감리교 50대교회 부목사님 영화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7. 한미준 목사님들을 모시고 영화시사를 했습니다. 상영후 한미준이 강력히 추천하는 영화라고 선전해도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8. 안산동산교회 전교역자 100명과 함께 영화상영했고 은누리교회 회복집회에서 2천명과 함께 영화상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들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9. WCC부산대회에서 영화가 상영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11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운영위 150인 모임에서 9분짜리 예고편 상영을 했습니다.

10. 기장대표교회인 경동교회 담임목사님으로부터 기장에서 협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제가 기도했던 예장통합, 기장, 기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11. 국민일보에 특별히 양면으로 기사화되었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와 CBS '새롭게 하소서' 양대 방송 간판프로에 다 출연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2. 그동안 영화 홍보를 위해 기도했던 5만불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동승교회와 밴쿠버 금융업계를 하는 형제를 통해 놀랍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영화를 세상과 교회에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화의 보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10개 도시에서만 상영합니다. 극장배급은 마이너 배급사이지만 울지마톤즈, 한경직 등을 제작 배급했던 마운틴픽처스가 담당하기로 했고 저는 교회에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영화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50분짜리 축약용은 교회에서, 90분짜리 풀버전은 극장에서 상영합니다. 교회에서 감상하셨으나 더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안 믿는 분들과 함께 오실 분들은 극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전 세계 300교회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중에는 백인 교회 30교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2010년 미주에서 70교회 문을 여신 것처럼 2013년 한국교회의 문들을 급하게 열고 계심을 봅니다.

저는 오랜 기도 끝에 “뷰티풀 차일드”를 원하는 교회에 값없이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 영화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음 프로젝트인 “아들의 노래”를 위한 헌금을 모아주시길 요청합니다. 저는 “뷰티풀 차일드” 교회에 값없이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아들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이 결정이 한국 크리스천 영화를 살리는 희망의 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성수 영화선교사 드림

## 한국섬선교회

한국의 섬은 3,160개로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427개다. 섬교회는 271개 섬에 모두 622개소가 있으며, 전체 유인도의 1/3이 넘는 156개 섬은 아직 교회가 없다. 즉 유인도 3곳 중 1곳은 교회 없는 섬이다.

방주호는 무교회 섬 전도를 위한 선박이다. 운항책임자(섬교회 교역자)는 정박지에서 1시간 정도 뱃길의 인근 5-10개 무교회 섬을 한 구역으로 정하고 수시로 순회 전도와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주일날, 운항책임자의 교회와 가까운 섬에 사는 성도들을 교회로 운반하여 예배 참석토록 하며 그렇지 않은 먼 섬은 평일에 방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방주호를 ‘찾아가는 교회’라고 부른다. 모이는 장소는 일정하지 않고, 일터인 밭이나 바다에서 모일 때가 많다. 바다 끝에 거칠더라도 섬사람이 있는 그곳이 예배장소가 된다.

1988년 방주1호를 시작으로 18척이 건조(재건조 포함)됐으며 현재는 7척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운항책임자(섬교회역자)는 33명이었으며, 순회하는 섬은 111개다. 방주호 정박지는 형편에 따라 옮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23곳이었으며 이를 지역적으로 보면 인천 1, 충남 3, 전북 1, 전남 14, 경남 4곳이다.

섬사람들의 고통을 제 몸의 일부인 양 함께 아파하며 보듬어주는 방주호 운항책임자들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은 더딜지라도 정직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노력한다. 오늘은 이 섬 내일은 저 섬, 주 복음 전하는 순례자의 뱃길을 방주호 사역자는 떠나고 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13년 육도에서 맞이한 여름, 저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습니다. 40명 안팎의 작은 섬마을인 육도를 찾아 온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도를 찾아온 손님들은 누구 하나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오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섬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작은 섬의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노크가 7-8월을 두드렸습니다.

수련회 준비로 바빴던 그동안의 여름과는 다르게 육도와 주변 섬을 돌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녔던 이번 여름은 저에게는 색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섬 주민들의 마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하게 도배하시는 하나님, 담뱃막 페인트와 벽화를 그리신 하나님, 방충망을 수리하시는 하나님, 마을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빛나는 십자가를 달아주시는 하나님 등 하나님께서 일하신 손길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작은 섬

육도에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섬 주민들의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을 하지도 않아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위대한 일을 꿈꿉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대하고 무엇이 특별한 일일까?”

2013년 여름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있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분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며 가장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분은 누구신가요?^^

작은 섬이라고 불리는 육도는 더 이상 저에게 작은 섬이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특별한 분이십니다.”

- 유선우

〈한국섬선교회〉 홈페이지 (http://ksum.org) 발췌

## 십자말 • Cross Word (1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가로 푸는 열쇠>

2. 좋음과 좋지 않음(민13:19).
4. 사해 서안 중앙부에 있는 샘인데 옛이름은 하사손다말이라 불렀다(수15:62).
6. 열매를 맺는 때(행14:17).
8. 옳으니 그르니 하는데 간여함(삼하13:22).
9. 수사하여 살살이 알아냄.(창44:12).
10. 예후의 선조(왕하9:20).
12. 갈릴리바다와 요단강 상류를 서경으로 한 작은 나라(신3:14).
14. 더듬어 찾아 구함(신12:30).
16. 성질이 간교하고 행실이 나쁨(사32:6).
18. 제미니, 타우리스 남쪽 끝에 있는 성좌(욥9:9).
20. 명주실로 편 피륙의 총칭. 실크(계18:12).
22. 여리고 동편 3킬로 요단강과의 중간에 있다. 여호수아의 작전기지(수4:19).
24. 삼가 절함(습1:5).
26. 스파이(창42:30).
28. 다윗을 반대하는 음모에 가담치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왕상1:8).
30. 동쪽에 있는 산. 에덴(요19:41).
32.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로 대제사장. 예수 재판관 유관(마26:3).
33. 향나무의 일종(창30:34).
35.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왕상4:10).
36. 지식계급의 사람(단2:21).

### <세로 푸는 열쇠>

1. 거룩하고 깨끗함(롬1:4).

2. 장한 의기(삼상16:18).
3. 기회를 노리고 형세를 살피는 것. “호랑이 눈”과 유관(고사성어).
4. 유다 평지에 있는 한 성읍(수15:34).
5.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창36:21).
7. 엘리야의 고향(왕상17:1).
11. 시각과 시각의 사이. 타임(삼상20:35).
12. 시편의 제목으로 쓰인 말. 교훈이란 뜻(시32, 42, 44 등).
13.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의 하나(스2:48).
15. 다 갓춤(약1:4).
17. 일 시킴을 당하는 자(삼상27:12).
19.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요5:39).
21. 암전하고 조출함(롬13:13).
23. 니므롯이 사냥 땅 유브라데 강 언덕에 세운 성(암6:2).
25. 배가 알을 뱉 무렵(창1).
27. 음식을 탐내는 사람(잠23:2).
29. 대제사장 엘리의 손자요 비느하스의 아들(삼상4:21).
31. 애굽인 산파. 히브리인의 산아를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지혜롭게 회피함(출1:15).
33. 빛내고 비유하는 뜻으로 남의 결점을 찌름(합2:6).
34.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화장용 기름(마26:7).

### 십자말 정답

아	미	리	조	나	산	속	에	있	는
기	도	원	판	매					
하	루	아	미	리	조	나	산	속	에
있	는	기	도	원	판	매			
하	루	아	미	리	조	나	산	속	에
있	는	기	도	원	판	매			
하	루	아	미	리	조	나	산	속	에
있	는	기	도	원	판	매			
하	루	아	미	리	조	나	산	속	에
있	는	기	도	원	판	매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 ‘한나 꽃집’

##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 (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8. 사모의 사명가꾸기(1)

사모의 사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모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그 이유는 전편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자의 행복을 철저하게 누린 자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여 행복한 사명자가 되었나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열정을 쏟은 자였습니다. 행9:1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아가 강하고 기독교에 대하여는 원수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내뿜어 너무나 환한 빛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에 얼떨떨해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명감 확실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 사명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쁨 넘쳐야

이런 놀라운 사건 뒤에 그는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이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들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명감을 다시 재정립하기만 한다면 더욱더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마다 제일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들 자세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 또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었음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들의 사명감을 흔들여 놓는 것은 부르신 자가 누구임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할 때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가 등등하여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바울이 어느 날 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소리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가소롭다고 필박하며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고

담대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들은 목회를 돕다가 때로는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약점으로 성도들에게 편찬을 받기도 하며 또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 스스로 사모의 자격도 없으면서 무슨 사역을 하겠나... 하면서 안팎으로 공격하는 마귀들의 공격에 그만 쓰러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 다 내려치우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아무리 큰 사역을 하였고 많은 은사를 나타냈던 자들도 이와 같은 자신의 공격 앞에는 맥을 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기에서도 자신의 사명감을 더욱 고취시켰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면서도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교회이전을 할 때에도 이명서를 첨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징계제도도 있어서 성도들을 견책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드문 지역에는 한사람이 귀하므로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애지중지 하다보면 성경대로 올바른 지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싫으면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해도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약속은 목회자의 사명감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재확인하는 것이 사명자의 사명을 더욱 순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

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자격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물을 주는 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선물을 받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선물의 성격을 강조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표현합니다. 육중에 갇혔을 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의 사명은 누가 주신 것인가를 날마다 재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난관 앞에서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행복하게 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불치병이 낫는 사건, 때로는 우연히 내뿜은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경우 더욱 더 그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표현하기를 만사되지 못해 나온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이 어떤 자임을 철저히 깨닫고 호소하기를 "나는 죄인중에 죄수니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역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 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존재를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행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 월 영원한 찬양(대상16:37-43)찬53장

인악제를 모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관리하여 찬양과 감사가 계속된 본문은 참 예배의 본을 보여줍니다. 첫째, 풍성하고 자비하신 하나님(4)을 항상 섬기도록 해만과 여두둔과 같이 택한 사람들로 순번을 정해 놓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둘째, 율법을 다 준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40).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잡이로 섬기지 아니하고 율법의 기준을 따라 섬기게 했습니다. 좁은 길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길입니다.

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셋째, 집안 식구를 축복하는 다윗의 본을 배워야합니다(43).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일은 제도적, 자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퓨리탄들이 행한 본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있었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은 사명을 깨닫고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 화 영원한 나라(대상17:1-15)찬250장

곤고한 날이나 형통의 날이나 하나님제일주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사람이 지나치는 곳을 하나님 거하시는 집으로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째, 그는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이 자신을 위하심을 알았습니다(1-6). 하나님은 자신을 존경할 자는 존경하시고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 여기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주님이 진토 중에서 건져 왕이 되게 하

신 것을 깨달았습니다(7-8). 너와 함께 하며,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리라고 하시는 너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는 약속은 하나님나라인 교회를 가리킵니다(12-14).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교회를 자녀로 삼아 교제케 하시는 은혜 언약을 보인 것입니다. 다윗가문이 아무리 출중해도 교회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참되신 그리스도의 집에 충성하십시오.

### 수 다윗의 확신(대상17:16-27)찬246장

아브라함의 즐거움이 다윗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서 그 즐거움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첫째, 그는 은혜로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자를 높이고서도 천한 목동을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의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은혜의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영원한 나라 속에서 즐거워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견고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으로 그리스

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셋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복됨을 알았습니다. 영원을 마시며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속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언제나 성령이 반드시 치료하십시오. 다윗처럼 영원한 은혜의식을 가진 자로 살아갑시다.

### 목 다윗의 승리(대상18:1-17)찬394장

다윗나라는 하나님나라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나라 승리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 승리를 어떻게 보여줍니다? 첫째, 모든 승리가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일에 절대 승리합니다. 둘째, 공과 의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목표는 공과 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은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인과 신(마23:23)을 자기 백성 속에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 금 은혜의 통로(대상19:1-5)찬392장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은혜가 세상에 전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 근거-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은혜언약의 최초의 표현입니다(창12:1-2). 이 약속은 다윗 때에도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서 더 확실히 나타났습니다(마28:19-20).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성

령의 약속(갈3:14) 곧, 복음을 받은 그들이 구원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둘째, 그 성취-마 28:19-20절에 나온 제자 삼는 목표는 전도와 예배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좌정하시는 임마누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됩시다.

### 토 교회의 절대승리(대상19:16-20:8)찬387장

아람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람은 암몬을 도우려다가 패하여 화친하고 블레셋은 교만 때문에 패합니다. 본문은 교회의 완전한 승리의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마16:18-20). 첫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삭라엘은 교회이고 아람은 적국들 곧,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원수는 반드시 망합니다. 둘째, 천국열쇠를 사용하여 이웃

을 살리게 하십니다. 교회는 천국열쇠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아무리 대적해도 우리는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열쇠로서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도전하며 보 장된 승리를 향유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회복이 불가능한 우리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사용함으로만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937-6754~5 군포시 금문동 874-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7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264-3181~5, Fax. (062)522-4834 500-170 경곡광역시 북구 금곡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이탈리아)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터미널 4호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목동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부예배: 오전 5:30 Tel. (02)2-2646-3181,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옥정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b>수령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FAX.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창동 137 번지	<b>시온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안길동 1층 63-3, (150-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b>안양 제3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go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9:30 목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9-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요니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7부예배: 오후 7: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144-7
<b>뱅크비발리델타교회</b>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0:00(월-30일) 금요기도회: 새벽 5:00, 7:00, 9:00 금요오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64-5780, Fax. (604)56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u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7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R.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일찬양예배: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예배: 아침 7:40 유. 초. 고. 초등예배: 오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금주 종교문화뉴스는 특별히 캄보디아 정치 상황을 소개한다. 훈센 정부는 국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자리바꿈하는 것으로 개각을 단행,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사진1

중동사태는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고 있으나 이집트는 군부의 정치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으며 무슬림형제단의 데모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한다.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영어로 "Son of a bitch"라는 욕을 하는데, 그것이 군부를 염두에 둔 것인지 혹은 무슬림 형제단을 말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즉 냉소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몰아내자 무슬림 형제단이 47개의 교회를 습격, 신자들을 죽이고 교회당 건물을 불태웠다. 리비아와 대부분의 중동국가들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새 대통령 로하니의 등장으로 자유주의 여성들이 스파넥스(고무같이 신축성이 있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다리를 노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두고 보수파들이 완강하게 비난한다는 이코노미스트지 기사가 매우 흥미롭다 (사진1)

## 1. 아시아 기독교: 설교자들의 일반적 상황

지난 8월말 영국 국제개혁교회대회에서 "아시아 교회의 설교 상황"을 발표했다. 동시에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설교의 정의도 제시하였다.

아시아 기독교 인구는 많게는 7%로 본다. 주로 산지족들이나 소수부족들 문화에서 기독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주류 종족이나 기존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회는 아직도 너무나 약하다. 기독교의 중력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였다고 말한다. AD1500년 3백만 명에 불과한 복음주의 신자가 지금은 6억4천8백만 명으로 증가

했는데, 이 중 54%의 신자는 비백인 크리스천들이다. 복음주의가 다수지만 부흥하는 곳은 주로 오순절 교회이다.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학교육은 아직 정상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종교개혁은 성경적 설교를 강조한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성경적 설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아시아 기독교 신자들의 70%는 "말로 설교를 듣는 자들"이지 읽는 자들이 아니다. 문맹률이 높으며 성경을 소유한 자가 적다. 동시에 많은 소수 부족들은 자기들의 성경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신학자나 신교사들은 도리어 문맹을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교회의 경우, 한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성경을 가르친 것이 교회성장의 비결이었다. 그러나 구두전달을 강조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다.

1) 아시아에서 문맹의 원인  
아시아의 비교적 높은 문맹률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1)일부 과격종교 세력들은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탈레반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딸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2)정치인들이 고의로 교육을 등한시하는 일이 많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저항의식이 강해진다고 여긴다. 독재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을 도리어 경계한다. 고의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

(3)사회적으로는 교사들의 대우가 낮아서 교사들이 정상수업 외에 오후 시간 과외수업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캄보디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급을 위하여 매일 500원에서 1천원 이상의 과외수업비를 내야 하는데 가난한 학생들은 과외 수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

(4)선진국에서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문화는 책 읽는 것을 등한시하게 한다. 현대를 가리켜 영어로 "exaltation of image and humiliation of words"라고 말한다. 현대 사회는 영상을 통하여 보는 것을 즐기지만 말이나 책 읽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시대이다.

## 2)아시아 기독교회 상황

(1)비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 기독교회는 엄청난 압박 가운데 있다. 압박의 원인은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이다. 비서구권의 많은 나라들은 독재와 부정부패가 심하다. 대개 해당 국가의 종교들은 부패하였으며 주로 독재적인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2)아시아와 대부분의 비서구 교회는 오순절 운동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서구의 일부 신교학자들이 발전시키는 영적 대결(power encounter)이론은 오순절 운동을 '백업'해준다. 오순절 운동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으나, 상당수 오순절 교회들은 가난한 사회적 환경에서도 자립한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나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부터 NGO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역하고 있다.

(3)선교를 통해 사람들이 개종하지만 불순한 동기(impure motive)의 개종도 있다. 일부 NGO와 선교사들은 "돈 선교"를 한다. 기독교는 여전히 하류층에 집중되고 교역자들의 수준도 낮다. 자기의 돈으로 혹은 교회 지원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자도 아주 적거나 전무하다.

(4)아시아에서 기독교는 아직도 변두리 세력으로 머물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는 소수 인종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여 주류 인종그룹의 복음화는 아직도 멀다. 그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해외 교회와 선교에 의존한다. (5)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철저히 인종중심의, 즉 동질집단의 교회이다. 인도네시아의 바타루 터란교회, 태국과 미얀마의 카렌침례교회 등 인종교회는 타인종에 대하여는 자연히 배타적이 돼 분열이 심하다.

아시아 교회의 분열은 신학적 요인과 인종 및 지도자들 간의 이권 다툼이 원인이 된다.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많은 교회들은 인종 중심의 교단 교회이다.

(6)아시아 교회의 상당수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적 목회로 성경적 교회 구조와 모순되는 지도력을 보인다.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한 OMF 선교사 데이비스 박사는 한국교회를 위시한 동남아 교회 목회자들의 권위주의적 목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위주의적 교회구조의 실례로 태국의 몽족교회(The Hmong Church), 야오족교회(The Yao Church) 및 한국교회를 든다.

그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디까지나 섬기는 리더십임을 강조한다. 아시아 교회의 권위주의적 목회 스타일은 아시아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 온 것이지 성경적 타당성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목회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한다.

(7)아시아 교회의 많은 신학자들은 자유

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타종교에 관용적 태도를 취하여 전도보다는 종교 대화를 더 중시한다. 따라서 '공격적' 선교나 전도를 비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신자들도 3, 4세대가 지나면 후세대들은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신앙의 열정을 상실, '문화적' 신자가 되어 영적 체험이 없다. 일부 아시아 국가의 진보적 교회지도자들은 신생 복음주의교회나 오순절교회의 열광주의를 비판한다.

(8)아시아 교회는 신앙 고백적인 교회인 것보다는 찬양 위주의 교회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시편찬송을 부르는 교회는 한국의 몇 교회만 있다. 가스펠 송은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에 감정을 고양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가스펠 송은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9)마지막으로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과 설교다. 캄보디아 기독교회에 대하여 일부 외국지도자들은 염려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젊지만 충분한 신학적 훈련을 받지 못했다. 성경언어를 배우지 못함으로 성경 해석에 한계가 있다.

(10)신학책이나 성경 주석 등 기독교 문서가 자기나라 언어로 번역되지 못하여 신앙지식이 약하다.

## 2. 계속되는 캄보디아의 정치 불안

지난 8월 총선 이후 캄보디아는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훈센수상과 야당지도자 삼행시가 대화모임을 가졌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훈센 수상은 일단 국회에 등원하여 문제를 풀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

이 비행기 제일 앞자리를 차지한다. 캄보디아 지도층 중들은 훈센정부를 지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상당수 젊은 중들이 이번 데모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그들의 구호는 평화와 사회정의였다. 현재 분신자살을 시도한 중은 감금상태에 있다고 한다.

선거 후 각 종교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다양하다. 이 나라의 50만 명 내지 60만 명의 째죽들은 대부분 무슬림들로서 훈센정부를 지지한다. 그러나 젊은 층이 많은 기독교회는 야당을 지지하고 있다. 도시의 청년층들은 철저히 반정부적이다. 사실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정통성이 약한 군부 장기독재인이다. 정치적으로 언제 불만이 터질지 모른다. 동남아 국가들이 신교사를 추방하는 것도 사실상 정치적 이유에서이다. 청년층을 선교의 대상으로 하는 외국 선교사들은 정치가들에게는 반가운 손님이 될 수 없다.

## 2)중동과 다른 캄보디아의 미래

캄보디아의 정치적 불안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 비교하면 낙관적이라고 본다. 시리아나 이집트, 리비아, 예멘, 튀니지 등 대부분 중동국가들은 데모나 혁명으로 정부패, 독재의 기존 권력을 몰아내고 난 후 도리어 더 나쁜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말았다. 즉 과격 종교 세력들이 이득을 챙기면서 더 무서운 독재자로 군림하거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반인륜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군세력이 결코 더 좋은 대안세력이 될



올해 2월 전 국왕인 시아누크 장례식에 참석한 중들(왼쪽) / 9월, 야당 데모에 가담한 중들(오른쪽)



회동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국회등원이 선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6일 아침 대규모 데모가 있었다. 특이한 것은 그동안 캄보디아 정치권력을 정당화했던 불교계 가운데 젊은 중들이 야당 데모에 참여, 목소리를 더 높였다는 것이다.

## 1)분신자살을 시도한 젊은 중

이제까지 캄보디아 역사상 중이 분신자살을 한 적은 없었다. 베트남이나 티베트에서도 볼 수 있는 분신자살시도가 캄보디아에서도 일어났다. 국제정치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동남아불교는 소승불교라 불교와 정치가 주로 "불순한 동맹관계"를 형성한다고 한다. 즉 불교는 왕이나 정치권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 한다. 즉 신이 기존정치 세력을 세우주었다는 식이다.

권력은 반대급부로 불교계에 많은 특혜를 부여한다. 태국이나 라오스에서는 중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의 청년들은 야당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미국이 삼행시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삼행시의 딸이 미국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 캄보디아 청년들은 이 부분에 높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청년들은 삼행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동안 기독교와 서구 문화와 가치관을 배워,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삼행시의 야당은 기독교를 억압하는 세력이었다는 주 목해야 할 것이다.

9월 21일 야당 국회의원들은 씨엠플의 앙코르와트 절에서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했다. 불교가 국교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절 앞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것은 세속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나라는 아직도 정치와 종교가 상생관계를 형성한다.

# 목회자를 위한 제 3회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

**죽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초대교회, 개혁주의, 청교도를 연결하여 연구하는 지회 청교도 연구회와 연구회 내에 실천기관인 청교도 가정사역원에서는 청교도 신앙의 손실에서 기인되는 각급 불신양적 요소를 통감하고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3회에서는 1697년에 지었다 개척한 뉴욕 유일의 보존 농가(윈드 소재)에서 미국프로테스탄트의 뿌리인 초기 청교도의 신앙생활, 경제활동, 가정생활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이 되도록 재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오셔서 복된 기회로 삼으시길 앙망합니다.

**일시 장소**

- 10월 19일 (Sat.) 2013년

- 퀸즈 농장 (내) 농가 "아드리안스 하우스" Queens County Farm Museum(내) Adriance House"  
73-50 Little Neck Parkway Floral Park, NY 11004-1129  
(718) 347-3276 (open 11am-4pm)

대상: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 가정사역자 및 가족 & 평신도 지도자 및 가족

**강의 내용 및 강사**

- "초기 청교도 농가생활과 경건 생활을 위한 순회설교와 현대 청교도 경건생활"  
- 김필식목사(영원교회 담임, UTS 학장)
- "청교도 초기 경제 생활과 현대 청교도 복음 주의 생활"  
- 이창종목사(뉴욕동서교회 담임)
- "청교도 초기 농가의 가정생활과 오늘의 적용"  
- 김경옥전도사(청교도가정사역원장, 수곡미술선교회회장, 부평현대교회 가정사역부담당 전도사)

**Directions(Street Parking) - Queens County Farm Museum**

A. From Brooklyn, Manhattan, Queens (West):  
A-1 Grand Central Parkway East to Exit 24 (Little Neck Parkway) 3 blocks  
A-2 I.E. East to Exit 32 (Little Neck Parkway)에서 RT- Little Neck Parkway로 1 1/2 miles.

B. From Long Island (East):  
B-1 Northern State Parkway West- Grand Central Parkway West to Exit 24 (Little Neck Parkway)에서 LT- Little Neck Parkway로 3 blocks  
B-2 L.I.E. West to Exit 32 (Little Neck Parkway)에서 LT- Little Neck Parkway로 1 1/2 miles.

C. From the Bronx (North):  
C-1 95 South to the Thruway Neck Bridge to Clearview Expressway south to Exit 1 - 그 다음은 A-1과 같은  
C-2. Whitestone Bridge to Cross Island Parkway to exit 29 East - 그 다음은 A-1과 같은

Subway & Bus:  
E or F Train to Kew Gardens/Union Turnpike Station  
Q46 Bus (eastbound on Union Tpk.) to Little Neck Parkway Stop  
Cross Union Tpk and walk North on Little Neck Pky 3 blocks to Museum Entrance

Long Island Railroad (LIRR):  
1. Hempstead Line to Floral Park Station.  
2. Port Washington Line to Little Neck Station.  
Ole's car service 이용 (24hr service 7 days a week; call 718-229-5454) - \$15 정도 for two people.  
두 노선 모두 농장에서 2 1/2 miles 마을버스는 주말엔 휴무

회비 및 순서: 세미나, 점심제공, 무료, (투어시 하우스 안의 박스에 자유도네이션)

- 11am -12pm 해설사투어, - 12pm-12:30샐러드와 샌드위치  
- 12:30pm-2:00pm 세미나, - 이후 자유시간(질의, 응답, 토론)및 해산

**주최: 청교도 연구회(회장 김필식목사) (718) 939-8278**  
**주관: 청교도 가정사역원(원장 김경옥전도사) (347) 822-8460**